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이 승 신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
의식과 녹색소비행동 비교연구

2010년 8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정보학과
목 건 문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
의식과 녹색소비행동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Green Consumption
Awareness and Green Consumption Behavior
between Consumers in Korea and China

이 논문을 소비자정보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0년 6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정보학과

목 건 문

목건문의

소비자정보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10년 6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v
그림목차	v
국문초록	v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녹색소비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1. 녹색소비의 개념	4
2. 녹색소비 지표	7
3. 녹색소비의식과 소비행동	9
4. 녹색소비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12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	14
1.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두	14
2. 녹색성장의 개념 및 의의	17
제3절 환경문제의 실태	19
1. 세계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19
2. 일상생활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20
제4절 환경정책	22
1. 한국의 환경정책	22
가. 환경정책의 여명기(1997년까지)	22
나. 환경정책의 형성기(1977-1989년까지)	23

다. 환경정책의 성숙기(1990-1999년까지)	24
라. 지속가능발전의 모색기(2000년 이후)	24
2. 중국의 환경정책	26
가. 개혁개방 이전	26
나. 개혁개방 이후	27
3. 한국과 중국 환경정책 비교	30
제3장 연구방법	34
제1절 연구 문제	32
제2절 연구 모형	33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4
1.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34
2. 녹색소비의식	34
3. 녹색소비행동	35
4. 척도의 신뢰도	35
제4절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	36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36
2. 분석 방법	36
제4장 연구결과	38
제1절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38
1. 사회경제적 변수	38
2.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41
3.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43
4. 한국과 중국소비자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 색소비교육 관련변수의 특성 비교	44

제2절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 수준	47
1. 한국과 중국소비자 녹색소비의식 수준	48
2.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	50
3.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	53
4.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	55
5.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비교	59
제3절 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수준	60
1. 한국과 중국소비자 녹색소비행동 수준	61
2.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	63
3.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66
4.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67
5.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비교	70
6.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 간의 상관관 계	71
제4절 한국과 중국 녹색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교	72
1.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73
2.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75
3.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교	77
제 5 장 결론 및 제언	80
참고문헌	84
부 록	87
ABSTRACT	94

표 목 차

<표 2-1> 소비자과 정부를 각 주체별로 녹색소비 추구 과제	7
<표 2-2> 생산과 유통분야의 녹색지표	8
<표 2-3> 환경교육·녹색소비교육의 차이점 비교	13
<표 2-4> 녹색성장 3대 요소와 내용	18
<표 2-5> 지구환경문제	19
<표 2-6> 한국의 환경정책의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25
<표 2-7> 한국과 중국 환경정책 비교	30
<표 3-1> 변수별 척도의 신뢰도	35
<표 4-1>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특성	39
<표 4-2>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특성	40
<표 4-3>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의 특성	41
<표 4-4>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의 특성	42
<표 4-5>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의 특성	44
<표 4-6>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의 특성	45
<표 4-7> 녹색소비의식 요인분석	47
<표 4-8> 한국과 중국소비자 녹색소비의식의 차이	49
<표 4-9>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51
<표 4-10>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52
<표 4-11>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53
<표 4-12>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54
<표 4-13>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56
<표 4-14>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58
<표 4-15> 녹색소비행동 요인분석	60
<표 4-16> 한국과 중국소비자 녹색소비행동의 차이	62
<표 4-17>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64
<표 4-18>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65
<표 4-19>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66
<표 4-20>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66

<표 4-21>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68
<표 4-22>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69
<표 4-23> 한국소비자의 녹색의식과 소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71
<표 4-24> 한국소비자의 녹색의식과 소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71
<표 4-25>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에 미치는 변수	74
<표 4-26>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에 미치는 변수	76
<표 4-27>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교	77

그림목차

<그림 3-1>연구모형	33
--------------------	----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 의식과 녹색소비행동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녹색소비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 녹색소비의식 및 녹색소비행동 변수들을 추출하여 실증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한국 서울특별시 및 중국 소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와 50대의 한국소비자 152명과 중국 소비자152명 남녀로 선정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로 선출하여 총 304부를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t-검정,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소비자는 환경문제관심도와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은 보통(M=3.00)이상 점수를 나타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소비자는 한국소비자보다 환경문제관심도와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 및 녹색소비행동은 한국 소비자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제어 : 한국, 중국, 녹색소비, 소비의식, 소비행동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세기 과학기술 발달과 산업기술개발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등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한국도 예외없이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심각화 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웰빙’ ‘로하스’ ‘슬로우푸드 운동’ ‘다운쉬프트’ 등 다양한 녹색생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백영숙·정상호, 2007).

환경문제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일회용품 사용자제와 같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녹색생활은 국가 뿐 아니라 개개인의 참여를 요구한다. 소비자 참여 없으면 녹색생활도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환경을 지키려는 녹색 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의 실천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비자의 생활양식이나 의식, 가치관의 변화 뿐 아니라 이들의 행동을 녹색소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편리함과 빠른 소비를 제공하는 패스트문화의 생활방식에서 다소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 녹색소비문화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되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녹색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친환경적 상품의 공급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 주택, 각종 생활용품의 녹색제품의 생산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참여의식이나 심리적 만족감만 가지고는 자발적인 녹색소비 실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환경 파괴적 소비, 과시적 소비 등 낭비적 소비 많이

줄이지 못한 채, 환경 파괴적 소비는 직·간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많이 남긴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삼겹살을 비슷한 축산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많이 배출되어 한국 하천오염 일어났다. 과시적 소비는 명품이나 사치품 등 과시적 상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연자원이 소모되고 환경파괴가 수반된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녹색소비의식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지, 아니면 녹색소비의식은 있지만 녹색소비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한 결과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본연구의 대상국을 한국과 중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은 정치·경제·사회제도적 환경이 다른 국가이다. 이러한 각각의 제도적 요인 중에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양국의 녹색소비 현황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중국 모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법에 있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환경정책기본법」, 중국은 「환경보호법」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법체계가 구축되어 있다(이정용, 2008). 또 녹색생활의 실천적 방안으로 녹색구매, 녹색사용, 녹색처분에 관한 생활운동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모두 녹색소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이며, 녹색상품의 개발과 녹색상품의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견해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또한 환경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전 논의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아시아나지역 역시 월경성오염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래서 최대 당사국들이라 중국과 한국의 녹색소비를 연구하는 것은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연구 사례가 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녹색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 측면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문헌연구보다는 실제 계량적 연구를 통한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서울특별시와 중국 소주시¹⁾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와 50대 성인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생활양식이나 소비의식, 가치관 변화되는 녹색소비자는 녹색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과 중국 녹색소비의식과 소비행동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에 있다. 20대는 정보화의 속도변화와 유행에 민감하고 재빠르게 적응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50대는 새로운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20대와 50대의 녹색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이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 및 녹색소비행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 각각의 녹색소비에 대한 소비자의식을 높이고 녹색소비행동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과 중국의 기업에게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이 의식하는 녹색소비를 정립시키고, 한국과 중국 소비자 녹색소비의식의 차이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로써 녹색제품 개발에 마케팅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 소주는 강소성 남부의 양자강 삼각주 평원 위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로 서남쪽으로는 태호(太湖), 북쪽으로는 양자강(揚子江)과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상해(上海)에 근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항주(杭州)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 남방의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녹색소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녹색소비의 개념

녹색성장의 필수요건 중 하나이자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창출의 출발점으로서 녹색소비(Green Consumption)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소비자·기업·정부의 총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소비란 개인의 소비자행동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소비생활양식이기도 하므로, 녹색소비가 녹색성장의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가 협력해야하며 전체 국가정책 틀 안에서 연계 추진되어야하는 것이다(배순영, 2010).

녹색소비는 자연친화적이거나 친환경적 녹색상품을 구매하는 것, 의식을 포함한 녹색 생활에 관한 부분은 천연재료를 이용한 의생활, 채식주의 음식, 친환경재료로 지은 주택 등을 떠올리기도 하고, 녹색여가라 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하는 여가활동(또는 농촌 체험 등을 포함한 친환경적 자연 체험프로그램 등)과 같은 흔히 떠오르는 내용들이 대부분 시민환경단체들이 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로서 막연히 생활은 좀 불편하지만 저탄소라 하여 CO₂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또는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는 방법 등으로 생각하고 있어 단편적인 용어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박명희, 2009)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의 ‘의제21’에서 녹색소비를 생산부분과 소비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녹색소비는 자원고갈 최소화, 자연의 오염·파괴 감소, 자원절약과 폐기물배출 최소화라는 목표를 생산과 소비분야 모두에 적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녹색소비의 범위가 녹색소비, 녹색생산을 촉진시키는 것을 시사한다.

또 UNDP(2002)의 녹색소비 개념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가져다주는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자연자원으로 이용, 유해물질이

용, 폐기물과 공해배출을 최소화하는 소비라고 정의 내렸다.

또한, UNDP의 개념은 녹색소비와 생산의 접근 틀을 반영하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생활주기에 적용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환경악화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 후에 OECD의 녹색소비의 개념은 UNEP와 같은데, 녹색소비의 개념은 생태효율성(eco-efficiency),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 생태공간(eco-space),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의 기본전제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이 주목 받고 있다. 녹색소비 자체를 녹색성정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환경과 성장,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녹색소비의 활성화는 녹색성정의 원동력이자 구심점으로 이를 실천하는 소비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영신, 2009)

녹색소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된 경우를 보면 (계선자, 노정구, 1996: 허경옥, 2009: 등) 환경, 소비자학, 생활과학에서 개념화된 녹색소비들은 주로 에너지절약, 친환경 용품 소비,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활용 하는 것, 합리적 소비와 절약, 가공 변형하지 않는 자연 상태의 것을 소비하는 것 등으로 개념화 되고 있으며 의생활, 식생활 부분에서는 친환경재를 활용한 제품의 생산과 사용 혹은 디자인 개념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녹색소비 개념을 정리종합하면, 녹색소비는 주로 자원의 재활용, 에너지 절약, 분리배출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삶, 생활양식 자체를 바꾸어 삶의 혁신적 변환, 즉 친환경화적 녹색생활이 일상의 생활로 정착됨을 의미한다. 전에 관련연구에서 사용하는 '환경의식적 소비자(environmentally conscious consumer)', '생태적 관심을 가진 소비자(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 '사회의식적 소비자(socially conscious consumer)',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소비자(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환경친화적 소비자(pro-environmental consumer)' 등의 용어는 친환경적 소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행동방식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민현선 외, 1999).

따라서 녹색소비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 녹색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즉 인간과 환경과의 유기적 긴밀성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생활양식을 변환시킬 수 있는 녹색교육 프로그램과 소비생활양식을 평가하는 지표 개발, 녹색소비의 실천행동 지침서 개발 및 보급, 녹색생활 관련 연구 및 조사 그리고 효과적인 녹색소비정책이 필요하다

2. 녹색소비 지표

소비자가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녹색소비지표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녹색소비지표에 관한 다양한 연구자료를 참고해서 아래 표를 만든다. (박명희, 2009; 박미정,2009; 허경옥, 2009: 등)

< 표 2-1 > 소비자와 정부를 각 주체별로 녹색소비추구 과제

	녹색구매행동	녹색사용행동	처분행동
소비자 개인	의생활: ·녹색공산품 구매 ·중고품 구매 ·동물의 털이나 가죽구매자제	의생활: ·여름에 시원한, 겨울에 따뜻한 의생활지향(여름에 넥타이 안매기, 겨울에 내복입기 등) ·세탁기 사용량 감소 ·천연세제 사용하기	의생활: ·의복의 재활용과 재사용
	식생활: ·녹색농산물 구매 ·지역농산물 구매 ·외식빈도 ·식품의 효율적 구매방식	식생활: ·물사용량 ·식재료사용의 효율성 ·냉장고사용의 효율성	식생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주생활: ·고효율 형광등기구 구매	주생활: ·주거용 전기, 에너지사용량 ·이중창이나 복층유리 설치 ·환경을 고려한 주거공간 디자인	주생활: ·재생활가능 폐기물 배출량 ·재사용불가능 폐기물 배출량
	여가생활: ·여가활동 소비지출 ·국내여행 빈도 ·국외여행 빈도	교통생활: ·승용차 운행거리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용 에너지사용량	
소비자 단체	의생활: ·관혼생제의 사치성 의복소비개선 ·과시성 꽃소비 감소	의생활: ·개인적 제작이나 소유보다는 사용중심의 빌리는 문화 정착	식생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성
	주생활: ·군집소비의 정도 사치주거패턴개선	주생활: ·공공건물의 에너지사용효율	
	교통생활: ·공적소비(공용차, 공용자전거 등)	교통생활: ·교통 수단의 군집소비(커플)	

출처: 허경옥, 녹색소비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2009.

한편, 녹색생산과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녹색소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생산과 유통 분야의 녹색지표를 살펴보면 효과적이다. 생산과 유통과정의 녹색지표는 <표 2-2>과 같이 정립될 수 있다.(허경옥, 2009)

< 표 2-2 > 생산과 유통분야의 녹색지표

단체	지표의 범주	개별지표
생산과 정	생산	·GDP ·녹색농산물 생산 농가수 ·녹색공산품 수 ·녹색농산물 시장점유율 ·녹색공산품 시장점유율
	녹색경영	·녹색농산물 품질 개선 ·녹색공산품 품질 개선 ·녹색회계 ·재활용 원료 이용 ·생산단위당 에너지 사용량 ·지역사회와 환경협력 프로그램운영
	환경교육 및 홍보	·제품광고에 환경성 포함 ·환경교육 이수 인력 ·자체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폐기물	·고체폐기물 배출량 ·액체폐기물 배출량 ·기체폐기물 배출량
유통과 정	녹색유통업체	·녹색농제품 판매업체수 ·녹색공산품 판매업체수 ·재사용 공산품 마장 운영
	녹색경영	·녹색제품 판매코너 면적 ·에너지절약 조명기구 사용 ·홍보전단지 재생종이 이용
	폐기물	·회수된 쇼핑봉투 재활용폐슈 재이용 시스템 운영 ·쓰레기 분리 ·유해폐기물 회수 체계
	환경교육	·환경교육 이수 인력 ·자체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처: 허경옥, 녹색소비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2009.

3. 녹색소비의식과 소비행동

가. 녹색소비의식

Hofstede(1997)에 따르면 의식(rituals)이란 한 문화 안에서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되는 집합적 활동을 가리킨다. 의식은 의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거행되는 것이다. 인사하는 법과 존경을 표하는 법, 사회적,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예이다.

녹색소비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녹색소비의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의 소비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행위로서 소비자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개인적 차원의 소비문제는 사회적문제와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peterson, 1993). 과소비의 경우는 지구자원의 과다한 소비로 인한 낭비의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호화 사치소비의 경우 타인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원의 낭비 또는 왜곡된 시장 환경을 형성하게 되므로 타인에 대한 녹색소비의식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만족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적 소비문화의 형성이 곧 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녹색소비의식이란 환경보전 및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는 행동을 배제하고 생태계의 평형과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생활양식을 선택하여 스스로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며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가치관 갖고 생활하려는 의식으로 정의한다.

현대 산업사회의 공업화, 도시화, 대량생산, 대량소비는 부산물로 환경오염, 대량 고체폐기물, 자원고갈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시켰으며 기존의 소비자문제로 주목을 받았던 상품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 부적절한 가격, 공정한 거래 및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소비자문제로 부각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식이 한층 더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 international)는 ‘소비자-시민-책임있는 소비자를 위한 활동지침서’를 발간하여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즉 소

비자는 책임있는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후손에게 맑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며, 이는 소비자로서 마땅히 지켜야하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상품 구매시 특징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제품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을 초래하여 사회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스스로 주권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권익을 옹호하여 산업 활동에 대해 비판하고, 기업공해에 대한 감기자 역할을 통해 공해문제, 인간소외 현상 등의 부정적인 면을 감소시켜야 한다.

나. 녹색소비 행동

녹색소비행동을 구매행동(buying activities), 사용행동(using activities), 처분행동(disposing activities)으로 구분한 연구들이 있었는데(박성미, 1997; 박운아, 1997) 환경친화적 구매행동은 “그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폐기할 때 초래되는 환경비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환경오염도를 낮추고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사용행동은 “제품의 소비, 사용 중에 환경을 고려한 소비행위를 하는 것으로, 아껴 쓰고 절약하는 행동”으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은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부득이 버릴 경우에도 재활용 가능하도록 분리수거하는 등 환경을 고려해서 처분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그 중 박성미(1997)는 녹색소비행동을 환경에 대해 덜 부정적이거나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박운아(1997)은 소비자가 자신의 사적인 욕구나 시장효율성뿐 아니라 자신의 소비의 결과가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고려하여 행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면서, 녹색소비를 물질적 풍요나 편리성에 강조를 두기보다는 사회생태학적으로 환경보전과 생태계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공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소비하여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소비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녹색소비활동의 목표를 인간의 삶의 질 중심으로 한 접근

에 의하여 소비의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소비의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고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과 다르게 녹색소비행동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비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환경보존을 위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소비행동이라고 정의하고, 환경재가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사적 이익이나 비용에 대한 기대가 행동 수행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민현선, 1998). 즉 녹색소비행동으로 인한 이익이 보다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행동과 개인보다는 사회나 환경에 대한 이익이 더 크게 부각되는 행동들이 소비자에 의해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종합하여 녹색소비행동의 범주를 크게 구매, 사용, 처분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행이며, 자원 절약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매와 사용, 처분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승신, 2003).

다. 녹색소비의식과 소비행동 간의 관계

녹색소비에 대한 사회 과학적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소비자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소비자학의 관점에서 녹색소비에 접근해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이 별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동일한 상황적 맥락에서 함께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의식과 행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소비에서 의식과 행동과의 관계가 파악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녹색소비가 가지는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태도와 행동 간의 괴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동수준이 의식에 못 미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으로서 의식과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다.

4. 녹색소비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녹색소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녹색소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소비가 가지는 ‘소비’라는 의미에 의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경보호와 소비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개념이 불구하고 녹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적응해야 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할 시대적 필수 요구 사안이다. 따라서 녹색소비가 좀 더 환경친화적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며, 녹색소비의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소비를 위한 실천 역시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도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들이 가까운 장래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녹색소비 사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등 일상생활에서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녹색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녹색소비사회를 대비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새로운 녹색산업 및 녹색직종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녹색소비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진로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속적인 시민의식 함양 및 교육을 통해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UNDESD/ 2005-2014)’ 선포 등 국제사회(OECD, APEC, ASEAN+3, ASEM 등) 요구에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동참하고, 나아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최준환, 2009).

그러나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실천사항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국민들은 기존에 학교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환경교육과 녹색소비교육의 개념에 대한 혼돈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녹색소비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녹색소비교육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진취적 성장을 목표로 미래 녹색소비를 주도할 녹색인재양성 및 범지구적 차원에서 녹색생활의 가치를 인식·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시민양성교육

(최준화, 2009)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융합시킨 녹색생활 교육이며, 미래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직업개척 능력 및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녹색소비 선진국 지위 확보를 위한 글로벌·리더교육(녹색성장위원회 외, 2009)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실시되어오던 환경교육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임을 감안할 때, 녹색소비교육과 환경교육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 2-3>와 같다.

< 표 2-3 > 환경교육·녹색소비교육의 차이점 비교

	환경교육	녹색소비교육
정의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진취적 성장을 목표로, 미래 녹색소비를 주도할 녹색인재양성 및 범지구적 차원에서 녹색생활의 가치를 인식·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시민양성교육
목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환경교육진흥법 제1조)	창의적이고 장인·개척자 정신을 갖춘 글로벌 녹색시민양성을 통해 세계 녹색소비 선도
현실성	환경 보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및 사회의 환경의식 제고와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기여하나 성장 측면을 강화 필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소비라는 목표를 위해 글로벌 시민품행을 갖춘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녹색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현실적이고 시의적인 국가교육 전략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외(2009).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과 녹색소비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능력이나 가치관, 지식 등을 함양한다는 공통성을 가질 수 있으나, 녹색소비교육은 단지 환경보전 및 개선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진취적 성장을 목표로, 미래 녹색소비를 주도할 녹색인재양성 및 범지구적 차원에서 녹색생활의 가치를 인식·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시민 양성교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겠다.

그간 많은 학교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긴 했으나, 환경교육의 필요성이나 의미, 영향 등에 대한 지식보다는 많은 경우 실천위주의 교육으로 전개되어 왔다. 녹색소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환경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과목 선택이 저조하고 부실 운영되고 있고,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자습·타 과목 수업 등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환경담당 교원 중 약 70%가 미자격 상치교원으로 전문성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환경 관련 내용을 각 과목의 특성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고, 타 과목 교원이 환경 관련 교원연수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여 범교과 차원의 내실 있는 환경교육 실현이 어렵다.

향후 녹색소비교육은 기존의 환경교육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진취적 성장을 목표로 미래 녹색소비를 주도할 녹색인재를 양성하고, 녹색생활의 가치를 인식·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시민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

1.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두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의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사고를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이 지구는 나, 그리고 나와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후세대를 위한 삶의 터전을 보호해 줄 의무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로 우리의 생활방식을 한 순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한 순간에 자연 파괴를 전혀 하지 않은 주체로 거듭나기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환경의 복구와 더불어 환경윤리의 교육이 중요하며 현대인의 소비패턴에 대한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가 꼭 필요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전 세계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지구환경 악화의 핵심 원인은 생산과 소비행태가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신고전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연보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나타났다. 고전경제학이 생산에 필요한 자연자원 공급의 한계에 의한 측면에서 점진적 경제성장의 문제점을 다루었다면 신고전경제학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상에서 제품의 가격은 자연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화석연료와 광물과 같은 재생 불가능한 자연자원의 희소성은 제품의 가격에 반영되고 있지만 공기, <제품 자연생태계의 기능 등은 무상자원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자연자원도 가격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고전경제학은 희소한 자연자원은 적절히 저장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무상의 자연자원도 가격에 반영시킴으로써 자연의 훼손을 막고, 이를 위해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최적의 규모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자연보전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피력한 것이다(정대연, 2003).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 개념은 1969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채택한 강령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7년에 발표된 세계환경발전위원회(WCED)의 UN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였다. 이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욕구의 개념으로서 특히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욕구에 일차적인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계의 개념으로서 기술과 사회조직의 상태가 현재와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능력에 미친다는 것이다(조형준·홍성태 역, 2005).

그 후 1992년에는 1972년 열렸던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회의 20주년 기

넘하는 동시에 2000년대를 대비하여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WCED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채택했고, 이것을 실천을 위한 ‘의제21(Agenda21)’ 까지 채택하기에 이른다. 「의제21」의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은 환경집 약도를 최대한 줄이는 소비를 의미이다. 환경집 약도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 한 단위당, 자연에 버려진 쓰레기를 자연이 정화하는 소위 자연의 자정능력의 소모량까지 최소화하는 것이다.

1994년 오슬로 국제학술대회의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은 기초적인 필요에 부응한 상품과 용역의 사용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하되 동시에 자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독성물질과 폐기물 방출 및 오염을 줄여 다음 세대의 필요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으로 정의한다. 또 환경기술과 녹색 상품의 개발, 재생불가능 자원 이용의 억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 확립,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수립과 쓰레기발생량의 감축을 5대과제로 나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개념상의 정립을 보다 명확히 이룬 것을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였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촌 공동체에 대하여 2005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촉구와 요청이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요소로 ‘경제, 환경, 사회’라는 세 가지 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경제 성장(economic growth)’,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세 차원을 두루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기존의 성장주의와 달리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의 한계론’의 유산 위에 자연의 부양능력의 한계를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부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환경보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한다(윤순진, 2009). 이를 통해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은 경제적(성장, 효율, 안정 등), 사회적(형평, 비배제, 권한 부여 등), 환경적(자연자원 고갈, 오염 등)요소를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들을 상호대립적이지 않게 조합해 나

가면서 발전하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서는 “자연에게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는 문화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또 하나의 축으로 추가한 바 있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42).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의 논의와도 접목된다(정대연, 2003:69). 이는 자연과 경제는 사회의 다른 요소들과 유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른 요소들도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여기에서는 자연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요소들도 포함시키는 다차원적 틀로서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하기에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명명되고 그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자연과 경제뿐만 아니라 이 둘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회적 요소들도 포함한 총체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소비가 적절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자원낭비적 생산량이 억제되고, 자원낭비적 생산량의 억제는 자연자원 추출의 억제를 가져오므로 자연자원의 추출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악화를 억제하자는 논리라고 본다(박명희, 2009).

2. 녹색성장의 개념 및 의의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성장방식으로, ‘경제성장이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또 환경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되어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다.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이다.

녹색성장은 ①건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② 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CO₂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 ③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등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성장은 살아있는 개념으로 새로운 문명,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수용하는 복합적이고도 ‘열린 개념(Open-ended Concept)’으로서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주체별로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이를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표 2-4 > 녹색성장 3대 요소와 내용

3대 요소	내용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개편(제조업 중심→지식서비스업 중심) ·에너지 소비절약/사용 효율화 ·생태 효율성 제고 정책
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CO ₂ 배출 등 환경 부하 최소화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CO ₂ 배출 규제 ·저탄소·친환경 인프라 구축 ·소비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신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세계시장 선점 지원

출처: 공감코리아, <http://green.korea.kr>

녹색성장 정책은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첫 째는 생산 및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성장은 녹색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이 두 가지 목표 중 후자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환경과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 두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는 경제성장은 자본, 노동, 자원이라는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와 기술발전 등에 의한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존의 성장정책은 당연히 요소의 투입 증가와 생산성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제3절 환경문제의 실태

1. 세계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그 범위가 점차 광역화 되고, 심각성 또한 확대되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과거의 환경문제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거나 환경용량 내에서는 자연의 자정능력에 의존해 왔으나, 현재 전 세계는 공통적으로, 인류 삶의 안전과 질을 위협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인 환경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엘니뇨현상, 사막화 등으로 대변되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 그 문제의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홍승아, 2009). 아래 <표 2-5>와 같이 이러한 환경문제들의 정의와 원인을 정리해봤다.

< 표 2-5 > 지구환경문제

항목	정의	원인
지구온난화	지구의 대기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중으로 배출됨으로써 일어나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때문임
오존층파괴	태양으로부터 발생된 강력한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상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생물이 무사히 생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오존 밀집층이 파괴되는 현상	프레온가스 할론 등의 화학물질들이 성층권의 오존층과 반응하여 일으킴
산성비	ph 5.6 미만의 빗물(중성의물/ph 7, 일반적 빗물/ph 5.6)	각종 오염원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중에 있는 수증기와 작용하여 강산성의 황산이나 질산을 형성함
엘니뇨현상	열대 동태평양의 광범위한 구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약 2~3℃ 가량 높아져,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어, 전 지구적 이상 기후를 초래하는 현상	적도 무역풍의 약화 등
사막화	부적절한 인간 활동에 기인하는 건조, 반건조, 건성 반습윤 지역에서 토지가 황폐화하는 현상	자연적 원인(고기압대에 비가오지 않음), 인위적 원인(온실효과, 광범위한 벌채, 빗물의 산성화 등)

출처: 이덕승(2009). 지구환경문제와 녹색소비자.

2. 일상생활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이 처럼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이 삶의 영위하는 모습 중에서 자연에 타격을 주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거나 연관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예를 들자면 가까이에 있는 책을 보면서 그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베어나갔을 지구 반대편의 나무와 그 나무의 벌목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환경의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직접 관련되기 힘든 관점으로 환경위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도 생태계 파괴는 곳곳에 녹아 있다.

예컨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일반인의 생활 속에도 환경에 타격을 주는 행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를 거꾸로 추적해 숨겨져 있는 환경문제를 살펴보자.

가. 커피

우리가 마신 커피의 원료가 되는 원두가 콜롬비아의 농장에서 왔다고 가정해보자. 한 잔의 원두커피를 만드는 데는 커피나무 한 그루에서 자란 원두의 60분의 1인 약 100개의 원두가 든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짧은 기간 동안 콜롬비아의 울창한 원시림은 이것을 위해 희생되었고 그 자리에는 밀집되고 잘 손질된 커피나무만이 뻗뻗하게 들어서게 되었다. 그 원시림은 세계 식물 중 전체의 18%의 원산지이며 조류의 경우, 가장 많은 종류의 새들의 고향이다. 새들이 없어지자 해충들이 급격히 번식했고 살충제 사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살충제 성분 또한 일부는 노동자들의 폐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살포되어 흩어진 후 식물과 동물들에게 흡수되거나 물에 씻겨 내려간다(고문영, 2002).

나. 신문

신문에 쓰여 질 폐지의 수집 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은 펄프를 이용한다. 이상 된 나무들이 매일 베어져 나가며 산 속에서 베어진 나무를 산 밑의 공장으로 가져가기 위해 대형 집재기에 나무를 묶고 산 아래로 끌고 가는데 이 과정에서 근처 하천의 생태계가 타격을 입는다²⁾. 또 펄프를 표백하기 위해서 산화 염소를 사용한다. 이 표백과정에서 폐놀계 화합물이 염소와 반응하여 다이옥신을 생성하는데 이는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면역체계를 파괴시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생식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고문영, 2002).

다. 옷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으로 만들어진 티셔츠 하나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티셔츠의 원료가 된 폴리에스테르는 한두 스푼 정도의 석유로 만들어진다. 12층짜리 첼제 탑에서 석유는 소각되며 정제된다. 이 과정에서 질소와 유황 산화물, 탄화수소, 먼지, 일산화탄소, 그리고 중금속을 대기 속에 방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염물질은 호흡곤란과 심장·폐 질환을 일으키며 면역체계를 파괴한다. 또 티셔츠의 포함된 면은 대부분 중국에서 재배된 목화에서 뽑아낸다. 목화씨는 삶을 때부터 살균제로 감싼 채 땅 속에 심게 되며 목화농업은 연간 세계 살충제 소비의 10%를 차지한다. 살충제로 덮혀진 땅에는 지렁이와 같은 지중생물이 살 수 없고 지중생물이 사라진 땅에서는 물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게 되므로 땅은 자연적인 생명력을 잃게 된다. 농부들은 목화숨에 얼룩이나 반점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수확하기 직전 다시 고엽제를 밭에 뿌린다. 그러나 절반정도의 고엽제는 근처의 들이나 냇가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결국 인간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2) 캐나다는 세계최고의 인쇄용지 생산국이며 특히 브리티쉬 콜롬비아 지역은 세계 인쇄용지 총량의 5%를 책임지고 있다. 나무를 잘라 산에서 끌고 내려갈 때 많은 양의 진흙과 돌맹이들이 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물고기와 양생동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지역의 프레이저 강은 세계 최고의 연어 생산지였으나 벌목으로 인한 변화로 연어 생산량이 80%나 줄었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정부 삼림청은 자연의 파괴를 줄이기 위해 매년 5천 km² 씩 벌목길을 제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년 생겨나는 새로운 벌목길은 그 두배에 이른다(고문영 역, 전개서, p.27).

된다(고문영, 2002).

라. 자동차

10km의 거리를 자동차로 가게 된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약 2,000cc 가량의 이산화탄소, 건강을 위협하는 약 200cc 가량의 일산화탄소, 그 외에도 매연 형태의 탄화수소와 이산화질소를 내뿜게 될 것이다. 또 가솔린과 같은 화석 연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주된 공급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는 미국의 1.5배, 일본의 2.5배에 달해 그만큼 승용차의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것이고 한국 자동차의 1회 평균 주행거리는 10km 이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제4절 환경정책

1. 한국의 환경정책

가. 환경정책의 여명기(1977년까지)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시기를 환경정책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된 다음해인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입법의 구색을 갖추는데 지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공해방지법]의 제정이 한국의 최초 환경법이 도입된 것으로 오인되기 쉬우나, 그 당시에는 이법을 집행할 행정기구도 없었고,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도 전무한 상태였다. 또한 시행규칙이 1969년에야 마련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다.

이 당시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보면 전후 경제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념이 주된 사회적 분위기였고, 경제발전이 시작단계였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일정부분 환경오염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행정조직도 소극적으로나마

구축하고 자연보호운동 등 관주도형 환경운동이 대두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정희성, 2003:488).

나. 환경정책의 형성기(1977-1989년까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졌던 1970년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기존의 [공해방지법]과 같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문제가 정의 실질적인 정책 사안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하고, 기존의 위생법적·공해법적 성격의 법에서 탈피하여 환경법적 성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한국 환경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의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수질오염 등의 공해적인 측면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환경보전법]은 그 대상을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환경 전반의 문제로 법적 외연이 확대되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환경보전법]이나 환경청의 설치로 말미암아 환경보전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기였다. 단지 환경정책은 합리적 개발을 위한 보완수단으로 인식되었고, 환경보전이 개발과 대립하는 갈등관계를 보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나 국민모두 빈곤 탈피를 위한 경제성장이 내면화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발 논리가 강하고 우선하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정희성, 2003:488).

1980년 환경청의 설립을 통해 각종 환경정책을 도입하여 자연환경파괴를 막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환경보전장기계획]의 수립, 수질환경관련 기초조사와 환경영향평가제도, 배출부담금제도 등 환경관리제도가 점차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다. 환경정책의 성숙기(1990-1999년까지)

80년대 말부터 환경오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30년

이상 진행된 산업화와 급속한 도시화는 환경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그로인해 환경문제는 심각해지고 다양화되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1990년을 환경보전원년으로 선언하고 기존의 환경청을 각료급 환경처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을 시작으로 각종 계획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리우회의’가 개최된 이후에는 많은 환경관련법이 제·개정되었고 다수의 환경계획도 수립되었다. 기존의 [환경보전법]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이질적인 분야를 하나의 법률(단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복잡화 되어가는 환경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오염분야별 대책강화를 위해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 등 6개법으로 분법(分法)하여 복수법체제로 전환하였다.

대형오염사건은 환경행정이나 정책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데 1994년 1월에 발생한 낙동강폐놀사건을 계기로 건설부의 상·하수업무가 환경처로 이관되었고, 1994년 12월에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어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기능이 강화되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차지의 시작으로 지방단위에서도 체계적인 환경정책이 수립될 수 있었다. 1992년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이후 2000년까지는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에 가려져 소홀히 다루어졌던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라. 지속가능발전의 모색기(2000년 이후)

2000년 들어 한국 정부는 6월5일 ‘환경의 날’을 기하여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였다. 이어 8월5일 제정· 공포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환경보전과 개발에 있어서 생기는 환경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

고,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사항을 내재화를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2002년 12월 30일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법률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을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었다. 기초를 전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은례, 2003:10).

기후변화를 감축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99년 2월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과 2000년 2월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세부추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심각해지는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1999년 한강에 이어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의 수질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표 2-6 > 한국의 환경정책의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시대구분	환경정책	환경행정	비고
환경정책의 여명기(1977년까지)	공해방지법(1963년)	보건사회부 내부조직(계, 과, 관리관)	국지적 환경문제발생개발 효과의 극대화
환경정책의 형성기(1977-1989년)	환경보전법(1977) 헌법상 환경권 및 환경보전 의 무	환경청발족(1980) 4대 강유역 환경조사 환경 보적 장기 종합 계획 (1987)	울산은산오염피해환경문 제의 광역화개발과 보전 의 갈등 환경피해자 자구 운동
환경정책의 성숙기(1990-1999년)	환경보전원년선 언(1990) 국가환경정책선 언(1992) 환경정책기본법 과 개별 환경 관련 법	환경처(1990) 환경부(1994) 환경보전중기계획 환경비전(1997)	환경문제의 국제화(리우회 의) 지방자치(지방의제21) 환경보전 공익운동
지속가능발전의 모색기	새천년 환경비전 4대강특별법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 회 유역별 수계관리위원 회	국토환경용량 관리 환경 경영과 자율관리 기후변 화협약

출처:정희성 외, 2003, [환경정책의 이해], 전영사.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경축사를 통해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과 경제가 성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이에 따른 10대 정책과제를 책정하였다. 첫 번째 전략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이며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① 저탄소 사회구축 ②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③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이 속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신성장 동력 창출’로 ④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산업구조의 고도화 ⑦녹색경제 기반 조성 등의 정책과제가 선장되고, 세 번째 전략으로는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로 ⑧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생활의 녹색혁명 ⑩세계적안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이 속하게 된다(윤정숙·남규현·유복희, 2005).

또한 농림수산물부는 2009년 5월 27일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공포하고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중국의 환경정책

가. 개혁개방 이전

1949년 공산당의 집권으로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자력갱생의 구호 속에서 공업화 5개년계획의 채택,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유발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전무한 상황이었다(조혜선, 2005).

1950년대 중국의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전후복구와 빠른 경제적 성장을 위해 환경보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1958년 대약진운동 시기로 진입하면서 중국은 정치와 경제면에서 속도조절적인 신중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중적인 기술혁명, 지방공업의 건설, 대규모 수리사업등에 대한 농업과 공업의 발전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으로 결집했다.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이념적인 서향이 짙은 대약진운동은 중국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Richard Louis Edmonds, 1999). 그렇지만 이 시기에 도시기초시설 건설과 하천개선 및 도시환경위생과 공장노동보호 개선 등 방면에서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이와 관련된 행정관리업무가 첫발을 내딛었다(공업기업 설계 임시위생기준, 중화인민공화국 수토보호 임시강요 공포).

60년대 초 중국정부는 “조정하고 공고히 하면서 충실히 하고 향상시킨다.”라는 새로운 방침을 실행하여 대규모 맹목적으로 착수된 공업 분야를 줄이고, 혼잡스러운 공업배치를 대대적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삼림보호조례)(관산자원보호조례)를 1963년 공포하였다.

1966년 모택동의 문화혁명의 시작은 중국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환경적인 퇴보를 평가된다.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파괴는 제지할 수 없을 만큼 만연하게 되었고, 1972년까지 중국은 자원과 환경관리방면에 심각한 후퇴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 중국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된다. 첫 번째로 중국의 동북부의 주요 항구도시인 대련 바다오염과 송화강에서의 미나마타병의 출현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건으로 중국 정부는 기존의 환경인식의 변화를 갖게 된다. 또한 이 당시 국무원 총리였던 주은레(周恩來)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도자로서 환경문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국의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에 있어 중요한 계기는 1972년 UN주도의 최초의 국제환경회의라고 할 수 있는 ‘UN인간환경회의(Unites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였다고 할 수 있다(Richard Louis Edmonds, 1999).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UN인간환경회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

국을 포함한 몇몇 개발도상국의 환경제도를 수립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UN인류환경회의는 세계 환경보호의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중국환경보호사업의 전환점이자 환경정책 발전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이 회의의 영향으로 중국은 1973년 국무원 주재로 제1차 전국환경보호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임하면 결코 늦지 않다”고 설교하고, “32字” 환경보호업무방침³⁾과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 내용은 그대로 1979년 환경보호법 제4조로 규정되었고, ‘三同時’제도와 ‘綜合利用’등 10개 부문에 관한 규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중국 최초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중국 환경보호법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1973년 11월, 국무원은 ‘제1차 전국환경보호회의’ 회의보고와 규정을 지방에 시달하면서 현재의 도시, 하천, 항구, 광공업기업 및 사업체의 오염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계획을 작성하고, 시기별·항목별로 해결에 힘쓰되 자금과 재료와 설비의 수요를 책임지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서 환경보호사업은 명확히 정부의 공식 사업이 되었다. 그러나 ‘32字’방침과 ‘綜合利用’등의 정책수립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표준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구호에 불과한 실정 이었다.

1974년 5월에는 환경보호업무 기관인 국무원 환경보호영도소조 및 그 판공실이 성립됨에 따라 각 부문, 각 성과 시도 연속적으로 환경관리기구와 환경보호 과학연구 및 측정 기구를 설립하였다. 일부 부서와 지역에서는 오염원 조사와 개선사업을 전개한 결과 환경보호업무가 시작된 지 몇 년 내에 일부지역과 일부 방면에 오염정도가 다소 감소되고 개선되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오염이 계속 심각한 추세를 보였고 자연생태파괴도 가속화되었다.

중국이 1972년 스톡홀름 유엔환경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이후 국내 환

3) 全面规划(전면계획), 合理布局(합리배치), 綜合利用(종합이용), 化害为利(화해위리), 依据群众(군중의거), 大家动手(모두행동), 保护环境(보호환경), 造福人民(조복인민)을 말한다.

경정책을 준비했던 시점부터 1977년까지는 중국화경제도화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시기에는 중국 정부가 중앙수준에서 환경조직과 관련 규정을 만드는 몇몇 단편적인 시도가 있었으며, 지방에서도 몇몇 성정부들이 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이 시기의 환경조직 및 법규들은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시행을 위한 세칙도 없었으며 정부의 의지도 빈약했기 때문이다(신상범, 2005:174). 또한 이 시기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관련문건들은 환경보호 자체보다는 공산당과 모택동의 영도력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나. 개혁개방 이후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는 중국이 환경정책, 법률, 조직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초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이후 중국정부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는 사회주의 현대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하여 1978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국가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한다.”고 최초로 규정하였다.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試行)》이 공포되고 이후 계속하여 몇 개항의 전문적인 법률과 정책규정이 반포되어 환경법제와 정책규정상에서 환경보호가 강화하는 법률적인 틀을 완성하였다.

1983년에는 환경보호가 중국의 기본국책의 하나로 확정되었고, 동시에 “三同步, 三統一”의 환경보호전략방침이 확립되었다. 기본국책인 환경보호를 관철하기 위하여 1984년을 전후하여 국무원 환경보호위원회와 건설부 산하에 국가환경보호국이 성립되었고 이후 1988년 독자적인 기구로서 환경보호국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환경조직은 각각 환경보호 국정방침의 정책결정과 감독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각급 인민정부도 점차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하였고 1990년에는 모든 성 단위 그리고 80% 이상의 시 단위에서 환경보호국 설립이 완성되었다.

이후 환경관리 강화를 핵심보호정책과 제도체계를 건립·발전시켰다.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중앙의 강력한 환경보호 의지가 환경제도, 조직, 법률의 구체화로 드러나고 정책내용도 점차 세분화되었다.

1994년 이후 현재까지는 중국 환경제도의 전반의 뚜렷이 발전하는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조직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의 환경보호국이 인원구성, 예산, 부서의 위상 면에서 크게 강화되었으며, 특히 1998년에는 환경보호국이 환경보호총국으로 승격되었다(신상범, 2005b).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준비과정에서 경제개방의 확대에 의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환경규제와 기준이 더욱 높아지고 중국의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2년까지 국가차원에서 제정된 6개 환경보호법률, 12개의 자원보호법률, 그 외 농업법, 도시계획법, 향진기업법 등을 제정하고, 국무원 행정법규 29개, 관련 부처의 70개 규칙, 375개의 국가환경기준 900여개의 지방 환경규정이 있기까지 큰 발전을 이루었다(조혜선, 2003, 재인용).

3. 한국과 중국의 환경정책 비교

< 표 2-7 > 한국과 중국 환경정책 비교

	환경정책 비교종합	
	한국	중국
환경법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책기본법> 이 중심 -오염메체별 규제를 위한 법 중심 -오염메체별 통합관리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호법>이 중심 -법치에 의한 환경관리 강조 및 규제강화
환경행정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추세(장관급 부서) -지방정부의 환경단속권 -법치에 의한 환경행정(환경정책강도 강함) -환경부의 고유의 업무영역이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위상강화(국무원 직속기과) -지방의 환경보호국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지배(경제발전을 우선시, 환경정책의 강도 약함) -환경보호총국의 고유의 업무영역이 미비함
환경관리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유인책과 자율적 규제수단이 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규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경제유인책이나 자율적 규제를 도입추세

출처: 이정용, 2008, [한·중 환경정책에의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과 중국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양국의 환경관련 법체계, 환경행정조직, 환경관리수단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 < 표2-7>과 같다.

한국과 중국 모두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중국은 한국에 비해 아직 법치에 의한 환경관리가 미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중국은 법에 의한 환경관리 및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환경행정조직과 관련된 환경관리에 있어 한국과 중국 모두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계적인 환경행정조직을 갖고 있다면 중국은 지방이 환경정책 실시의 최대 장벽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론 지방정부차원에서 환경문제보다는 지역발전에 중심을 두는 정책을 우선하여 중앙의 환경정책의 집행강도가 낮다.

환경관리제도에 있어 한국은 중국보다 선진국의 측면에 더 가깝다. 한국은 정부의 직접 규제적인 면에서 경제적 유인수단이나 자율규제가 제도적으로 더 활발히 구축이 되어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 국가명령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엔 중국 역시 경제적 유인수단이나 자율기제를 이용한 환경관리 수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모형은 먼저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을 자원절약 의식, 자원관리의식, 환경보존의식과 환경보존 참여의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라 녹색소비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비교와 아울러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녹색소비의식에 따라 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 1-1.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의 수준은 어떠한가?
- 1-2.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은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3. 한국과 중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의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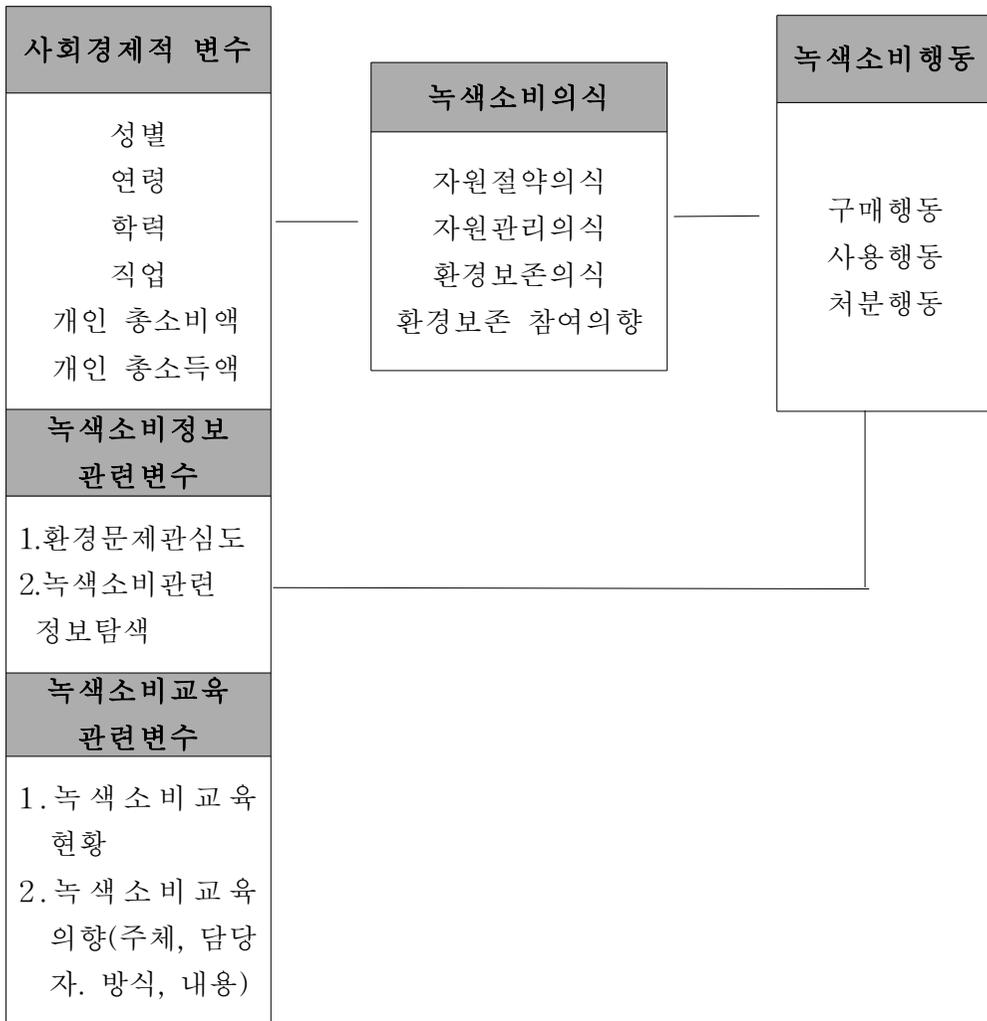
<연구문제 2> 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 2-1.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 2-2.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은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3. 한국과 중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4.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소비행동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과 중국소비자에게 녹색소비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제 2 절 연구 모형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법으로 수집되었다. 작성된 측정도구는 총 55문항의 자기 기입식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 및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독립변인으로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를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사회경제적 변수 7문항,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14문항,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9문항 그리고 종속변수인 녹색소비의식 13문항과 녹색소비행동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를 측정하였다.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는 환경문제 관심도와 녹색소비관련 정보탐색으로 2가지 변수를 보았다. 환경문제 관심도는 8문항이며, 녹색소비관련 정보탐색은 6문항이다. 그리고 환경문제 관심도 각각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나친다(1점)에서 대충 본다(2점), 그저 그렇다(3점), 비교적 관심 있게 본다(4점), 매우 관심 있게 본다(5점), 녹색소비관련 정보탐색 각각에 대하여 전혀 접하지 않는다(1점)에서 별로 접하지 않는다(2점), 가끔 접한다(3점), 종종 접한다(4점), 매우 자주 접한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2. 녹색소비의식

본 연구에서는 녹색소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자원절약의식, 자원관리의식, 환경보존의식, 환경보존 참여의향 등 4가지 변수로 보았다. 자원절약의식은 2개 문항이며, 자원관리의식은 4개 문항이며, 환경보존의식은 4개 문항과 환경보존 참여의향은 3문항으로 총 13문항이다.

녹색소비의식은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을 부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녹색소비의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원에 관한 의식은 소비자들이 자원의 이용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이며, 환경에 관한 의식은 환경보호에 관련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제시한다.

3. 녹색소비 행동

본 연구에서는 녹색소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등 3가지 변수로 보았다. 구매행동은 2개 문항이며, 사용행동은 6개 문항이며, 처분행동은 4개 문항으로 총 12문항이다. 녹색소비행동은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을 부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녹색소비행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주는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척도의 문항과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 표 3-1 > 변수별 척도의 신뢰도

변수	척도내용	문항수	신뢰도계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환경문제 관심도	8	0.895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	6	0.793
	녹색소비의식	13	0.877
	녹색소비행동	12	0.897

제 4 절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소비자를 조사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0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한국 서울특별시와 중국 소주시에 거주하는 20대와 50대 성인 소비자 각 1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3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3월 25일부터 2010년 3월말까지 한국 서울특별시와 중국 소주시에 거주하는 20대와 50대 성인 소비자 각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4부를 배부하였고 304부 전체가 회수(회수율100%)되었으며, 이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논문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4.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신뢰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 수준에 대한 문제에서는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은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으로 유의도를 검증하였고,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사용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수준에 대한 문제에서는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은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으로 유의도를 검증하였고,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사용하였다.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넷째, 한국과 중국소비자에게 녹색소비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1. 사회경제적 변수

가.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특성

사회경제적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액, 월평균 소비액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52명 중 남자가 50.0%와 여자가 50.0%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가 각76명 있다. 20대 한국소비자의 직업 분포는 학생 27명(17.8%), 전문직, 관리직 22명(14.5%), 사무직, 서비스직 20명(13.2%), 주부, 무직 7명(4.6%)의 순으로 나타났고 50대는 전문직, 관리직 41명(26.9%), 사무직, 서비스직 22명(14.5%), 주부, 무직 13명(8.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 50명(32.9%), 고졸 이하 26명(17.1%)으로 나타났고 50대는 전문대졸 이상 51명(33.5%), 고졸 이하 25명(16.5%)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개인 월평균 소득액은 평균 124.61만원으로 280만원 이상 4명(2.6%), 130만원~280만원 33명(21.7%), 130만원 이하 39명(25.7%)으로 나타났고 50대는 평균 345.77만원으로 280만원 이상 41명(27.0%), 130만원~280만원 22명(14.5%), 130만원 이하 13명(8.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의 개인 월평균 소비액은 평균 65.53만원으로 160만원 이상 1명(0.6%), 70만원~160만원 24명(15.8%), 70만원 이하 51명(33.6%)으로 나타났고 50대는 평균 211.97만원으로 160만원 이상 46명(30.3%), 70만원~160만원 22명(14.4%), 70만원 이하 8명(5.3%)으로 나타났다.

< 표 4-1 >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특성 N=152

사회경제적 변수		N (%)	
		20대	50대
성별	남	38(25.0)	38(25.0)
	여	38(25.0)	38(25.0)
직업	학생	27(17.8)	0(0.0)
	전문직, 관리직	22(14.5)	41(26.9)
	사무직, 서비스직	20(13.2)	22(14.5)
	주부, 무직	7(4.6)	13(8.5)
학력	고졸 이하	26(17.1)	25(16.5)
	전문대졸 이상	50(32.9)	51(33.5)
월평균소득액	상 (280만원 이상)	4(2.6)	41(27.0)
	중 (130만원~280만원)	33(21.7)	22(14.5)
	하 (130만원 이하)	39(25.7)	13(8.5)
	평균	124.61만원	345.77만원
월평균소비액	상 (160만원이상)	1(0.6)	46(30.3)
	중 (70만원~160만원)	24(15.8)	22(14.4)
	하 (70만원 이하)	51(33.6)	8(5.3)
	평균	65.53만원	211.97만원

나.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특성

사회경제적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비액으로 구성하였으며, 중국 조상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52명 중 남자가 50.0%와 여자가 50.0%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가 각 76명 있다. 20대 중국소비자의 직업 분포는 사무직, 서비스직 37명(24.4%), 전문직, 관리직 16명(10.5%), 학생 12명(7.9%), 주부, 무직 11명(7.2%)의 순으로 나타났고 50대는 사무직, 서비스직 53명(34.8%), 전문직, 관리직 18명(11.9%), 주부, 무직 5명(3.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 65명(42.7%), 고졸 이하 11명(7.2%)으로 나타났고 50대는 전문대졸 이상 60명(39.5%), 고졸 이하 16명(10.5%)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개인 월평균 소득액은 평균 73.67만원으로 98만원 이상 3명(2.0%), 54만원~98만원 29명(19.1%), 54만원 이하 44

명(28.9%)으로 나타났고 50대는 평균 81.75만원으로 98만원 이상 27명(17.8%), 54만원~98만원 34명(22.4%), 54만원 이하 15명(9.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의 개인 월평균 소비액은 평균 30.97만원으로 42만원 이상 12명(7.9%), 20만원~42만원 31명(20.4%), 20만원 이하 33명(21.7%)으로 나타났고 50대는 평균 30.34만원으로 42만원 이상 19명(12.5%), 20만원~42만원 30명(19.7%), 20만원 이하 27명(17.8%)으로 나타났다.

< 표 4-2 >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특성 N=152

사회경제적 변수		N (%)	
		20대	50대
성별	남	38(25.0)	38(25.0)
	여	38(25.0)	38(25.0)
직업	학생	12(7.9)	0(0.0)
	전문직, 관리직	16(10.5)	18(11.9)
	사무직, 서비스직	37(24.4)	53(34.8)
	주부, 무직	11(7.2)	5(3.3)
학력	고졸 이하	11(7.2)	16(10.5)
	전문대졸 이상	65(42.7)	60(39.5)
월평균소득액	상 (98만원 이상)	3(2.0)	27(17.8)
	중 (54만원~98만원)	29(19.1)	34(22.4)
	하 (54만 이하)	44(28.9)	15(9.8)
	평균	73.67만원	81.75만원
월평균소비액	상 (42만원이상)	12(7.9)	19(12.5)
	중 (20만원~42만원)	31(20.4)	30(19.7)
	하 (20만원 이하)	33(21.7)	27(17.8))
	평균	30.97만원	30.34만원

2.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가.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대한 특성

한국소비자의 환경문제관심도를 살펴보면 관심도의 항목에서는 ‘환경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5점 만점에 4.07점으로 가장 높다. 모든 항목이 중간 이상의 평균 분포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는 5점 만점에 3.69점으로 보통 이상의 관심도를 보였다. 그리고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의 항목에서는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5점 만점에 3.38점으로 가장 높다. 모든 항목이 중간 이상의 평균 분포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는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보통 이상의 탐색도가 나타났다.

< 표 4-3 >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의 특성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M	SD
환경문제 관심도	1.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실태	3.78	0.898
	2. 환경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4.07	0.738
	3. 녹색소비 정책, 제도에 관한 내용	3.16	0.997
	4. 재활용 이용에 관한 정보	3.39	1.017
	5. 쓰레기처리나 분리수거 방법	3.75	0.951
	6.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현황	3.77	0.938
	7.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관한 정보	3.70	1.091
	8. 물이나 전기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실천방법	3.88	0.868
평균		3.69	
녹색소비 관련 정보탐색	1.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3.38	0.912
	2. 인터넷	2.95	1.034
	3. 신문, 잡지, 서적 등 인쇄매체	3.10	1.002
	4. 정부, 소비자단체	2.87	1.001
	5. 학교 교육	2.59	0.980
	6. 가족이나, 이웃, 친지, 친구 등	2.63	1.001
평균		2.92	

나.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대한 특성

중국소비자의 환경 문제 관심도를 살펴보면 관심도의 항목에서는 ‘환경 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5점 만점에 4.47점으로 가장 높다. 모든 항목이 중간 이상의 평균 분포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는 5점 만점에 3.99점으로 보통 이상의 관심도를 보였다. 그리고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의 항목에서는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5점 만점에 3.38점으로 가장 높다. 모든 항목이 중간 이상의 평균 분포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는 5점 만점에 3.33점으로 보통 이상의 탐색도를 보였다.

< 표 4-4 >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의 특성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M	SD
환경문제 관심도	1.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실태	4.19	0.836
	2. 환경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4.47	0.718
	3. 녹색소비 정책, 제도에 관한 내용	3.63	1.084
	4. 재활용 이용에 관한 정보	3.59	1.063
	5. 쓰레기처리나 분리수거 방법	3.63	1.084
	6.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현황	3.93	1.049
	7.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관한 정보	3.81	1.078
	8. 물이나 전기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실천방법	4.26	0.842
평균 3.94			
녹색소비 관련 정보탐색	1.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3.99	1.033
	2. 인터넷	3.86	1.153
	3. 신문, 잡지, 서적 등 인쇄매체	3.74	0.980
	4. 정부, 소비자단체	2.78	1.050
	5. 학교 교육	2.79	1.254
	6. 가족이나, 이웃, 친지, 친구 등	2.80	1.170
평균 3.33			

3.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가.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대한 특성

한국소비자는 녹색소비교육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120명(78.9%)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녹색소비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 학교에서 녹색소비교육을 받은 사람 16명(50.0%), 시청각을 통하여 녹색소비교육을 받은 사람 19명(59.4%)의 비율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는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사람 60명(50.0%)의 비율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는 녹색소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가 139명(91.4%)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녹색소비교육을 받는 의향에 대한 질문에 ‘참여하겠다’가 117명(77.0%)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담당자는 사회단체, 민간기구 56명(36.8%), 정부 43명(28.3%), 학교 34명(22.4%)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 나타났고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방식은 실습, 체험 55명(36.2%), 현장학습, 견학 46명(30.3%)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내용은 녹색에너지, 녹색소비정책 68명(44.8%), 환경보전 59명(38.8%), 자원절약 25명(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4-5 >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의 특성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N(%)
녹색소비교육 경험		있다 없다 120(78.9)
경험 있다	교육 담당자	정부 사회단체, 민간기구 종교단체 학교 기타 16(50.0) 1(3.1)
	교육 방법	강의 시청각 현장학습, 견학 기타 19(59.4) 3(9.4) 1(3.1)
경험 없다	이유	관심이 없어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몰라서 14(11.7) 60(50.0) 15(12.5) 31(25.8)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13(8.6) 139(91.4)
교육 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13(8.6) 139(91.4)
교육받는 의향		참여하지 않겠다 참여하겠다 35(23.0) 117(77.0)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담당자		정부 사회단체, 민간기구 학교 종교단체, 가정 43(28.3) 56(36.8) 34(22.4) 19(12.5)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방식		실습, 체험 시청각 현장학습, 견학 강의 55(36.2) 27(17.7) 46(30.3) 24(15.8)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내용		자원 절약 환경보전 녹색 에너지, 녹색소비 정책 25(16.4) 59(38.8) 68(44.8)

나.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대한 특성

< 표 4-6 >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의 특성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N(%)	
녹색소비교육 경험	있다	59(38.8)	
	없다	93(61.2)	
경험 있다	교육 담당자	정부	24(40.7)
		사회단체, 민간기구	10(17.0)
		학교	15(25.4)
		가정	5(8.5)
		기타	5(8.5)
	교육 방법	강의	2(3.4)
		실습, 체험	15(25.4)
		시청각	20(33.9)
		현장학습, 견학	15(25.4)
		기타	7(11.9)
경험 없다	이유	관심이 없어서	6(6.5)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63(67.7)
		시간이 없어서	15(16.1)
		잘 몰라서	9(9.7)
교육 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19(12.5)	
	필요하다	133(87.5)	
교육받는 의향	참여하지 않겠다	16(10.5)	
	참여하겠다	136(89.5)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담당자	정부	92(60.5)	
	사회단체, 민간기구	22(14.5)	
	학교	33(21.7)	
	종교단체, 가정	5(3.2)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방식	실습, 체험	28(18.4)	
	시청각	20(13.2)	
	현장학습, 견학	96(63.2)	
	강의	8(5.3)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내용	자원 절약	49(32.3)	
	환경보전	64(42.1)	
	녹색 에너지, 녹색소비 정책	39(25.7)	

중국소비자는 녹색소비교육의 경험이 없는 사람 93명(61.2%)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녹색소비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정부에서 녹색소비교육 받은 사람 24명(40.7%), 시청각을 통해 녹색소비교육 받은 사람 20명(33.9%)의 비율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험이 없는 사

람 중에 교육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사람 63명(67.7%)의 비율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소비자는 녹색소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가 133명(87.5%)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녹색소비교육 받는 의향에 대한 질문에 ‘참여하겠다’가 136명(89.5%)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담당자는 정부 92명(60.5%), 학교 33명(21.7%), 사회단체, 민간기구 22명(14.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 나타났고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방식은 현장학습, 견학 96명(63.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내용은 환경보전 64명(42.1%), 자원절약 49명(32.3%), 녹색 에너지, 녹색소비 정책 39명(25.7%)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의 특성 비교

한국과 중국의 경제제도 차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의 직업 분포는 20대는 학생이 많이 차지했고 50대는 관리직이 많이 차지했으니까 한국에서 20대의 개인월평균소득과 소비는 50대보다 많이 낮게 나타났다. 중국소비자들은 20대와 50대 모두 사무직이 많이 차지했다. 한국과 중국의 생활수준 차이 때문에 월평균소비액과 월평균소득액은 한국소비자가 중국보다 많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학력 다 높게 나타났다.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를 보면 한국과 중국소비자들이 다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많이 접하고 환경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 관심이 제일 많다. 그리고 중국에서 환경문제 더 심각하게 나타나서 중국소비자들의 환경문제 관심 정도, 정보탐색 정도는 한국소비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은 녹색소비교육의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많이 자치하는데 특히 한국에서 120(78.9%)명이 자치했다. 그리고 대부분 소비자는 교육받는 의향이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 받았다. 그래서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어진다.

제2절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 수준

< 표 4-7 > 녹색소비의식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Cronbach's α
1. 자동차대신 자전거,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해야 한다.	.652	-.091	-.202	.091	0.663
2.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등 충동구매를 피해야 한다.	.612	-.071	.000	-.135	
3. 중고제품이나 재활용 제품을 적극사용해야 한다.	-.110 .059 -.055 -.079	.443 .286 .370 .339	-.281 .025 .001 .003	.105 -.125 -.112 -.064	0.804
4. 녹색상품이 어느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5. 소비하고자 하는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6.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7. 정부는 재활용을 위한 연구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037 -.121 -.026 -.060	.015 -.005 -.196 -.066	.402 .326 .482 .296	-.219 -.028 -.049 .035	
8.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해야 한다.					
9.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10. 매스컴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기업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원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다.	-.025	-.013	-.242	.515	0.843
12.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043	-.052	-.057	.398	
13. 환경오염을 시키는 제품을 친구들이 사지 않도록 적극 권유할 생각이 있다.	-.003	-.093	.032	.308	
고유치	.933	5.382	1.093	1.463	
요인적재값	7.177	41.399	11.253	8.409	
누적적재값	68.236	41.399	61.061	52.652	
평균	3.96	3.91	4.40	3.55	

녹색소비의식 내용 13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더니 < 표 4-7 > 과 같이 나타났다. 문항 1, 2를 요인 1로, 문항 3, 4, 5, 6을 요인 2로, 문항 7, 8, 9, 10을 요인3으로, 문항 11, 12, 13, 14를 요인4로 묶을 수 있었다. 요인 3의 평균이 4.40으로 가장 높았고, 요인 4의 평균이 3.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인 1은 0.663, 요인 2는 0.804, 요인 3은 0.756, 요인4는 0.843의 신뢰성을 보였다.

요인들의 공통되는 것을 찾아 요인 1을 자원절약의식, 요인 2를 자원 관리의식, 요인3을 환경보존의식, 요인 4를 환경보존참여의향을 정하였다.

1.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 수준

한국과 중국소비자는 녹색소비의식에 대한 13개 측정항목이 모두 평균 (M=3.00) 이상의 분포를 보여 한국과 중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한국과 중국의 녹색소비의식 13개 측정항목 중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한국 M=4.37, 중국 M=4.68)’이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한국 M=3.05, 중국 M=3.78)’는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 표 4-8 >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녹색소비의식 차이를 본 결과, 13개 측정항목 중 4개 문항 (자동차대신 자전거,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등 충동구매를 피해야 한다; 중고품이나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소비하고자 하는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9개 문항을 보았을 때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이 더 높았다. 왜냐하면 중국의 환경문제 더 심각하는데 해결하기 위해 중국소비자는 녹색소비 관련정보를 방송매체, 학교, 정부 등에 통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소비자 녹색소비의식의 차이는 < 표 4-8 >와 같다.

< 표 4-8> 한국과 중국소비자 녹색소비의식의 차이

녹색소비의식		한 국		중 국		T
		M	SD	M	SD	
자원 절약 의식	1. 자동차대신 자전거,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해야 한다.	3.88	0.935	3.91	0.969	-0.301
	2.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등 충동구매를 피해야 한다.	3.99	0.949	4.07	0.885	-0.813
	전체	3.93	0.803	4.00	0.815	-0.639
자원 관리 의식	3. 중고제품이나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4.01	0.822	3.92	0.994	0.881
	4. 녹색상품이 어느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3.94	0.855	4.40	0.776	-4.946***
	5. 소비하고자 하는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3.78	0.898	3.79	0.858	-0.065
	6.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3.61	0.978	3.83	0.828	-2.152*
	전체	3.84	0.676	3.99	0.665	-2.130*
환경 보존 의식	7. 정부는 재활용을 위한 연구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3.99	0.980	4.49	0.671	-5.190***
	8.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해야 한다.	4.19	0.761	4.65	0.555	-6.027***
	9.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4.37	0.827	4.68	0.582	-3.768***
	10. 매스컴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기업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4.20	0.901	4.66	0.577	-5.230***
	전체	4.19	0.685	4.62	0.446	-6.492***
환경 보존 참여 의향	1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원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다.	3.24	1.029	3.90	0.897	-5.940***
	12.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3.05	1.006	3.78	1.009	-6.376***
	13. 환경오염을 시키는 제품을 친구들이 사지 않도록 적극 권유할 생각이 있다.	3.43	0.946	3.89	0.936	-4.327***
	전체	3.24	0.863	3.85	0.803	-6.478***
전체		3.82	0.593	4.15	0.496	-5.284***

*P < 0.05 **P < 0.01 ***P < 0.001

2.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을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 표 4-9 >, < 표 4-10 >와 같다.

< 표 4-9 >를 통해서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자원절약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월평균 소득액($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월평균 소득액 중층집단의 한국소비자들의 자원절약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자원관리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직업($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의 한국소비자들의 자원관리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환경보존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연령($P<0.05$), 직업($P<0.05$), 월평균 소비액($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20대, 학생, 사무직, 서비스직, 월평균 소비액 상, 중층집단의 한국소비자들의 환경보존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환경보존 참여의향의 차이를 본 결과, 연령($P<0.01$), 직업($P<0.01$), 월평균 소득액($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50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월평균 소득 상, 중층집단의 한국소비자들의 환경보존 참여의향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전체 녹색소비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직업($P<0.05$), 월평균 소득액($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월평균소득 중층집단의 한국소비자들의 전체 녹색소비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 표 4-9 >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원절약의식		자원관리의식		환경보존의식		환경보존참여의향		전체	
		M	D	M	D	M	D	M	D	M	D		
성별	남	3.82		3.87		4.25		3.20		3.83			
	여	4.05		3.80		4.13		3.27		3.82			
t값		-1.729		0.599		1.156		-0.469		0.105			
연령	20대	3.94		3.81		4.33		3.03		3.81			
	50대	3.93		3.86		4.05		3.45		3.83			
t값		0.101		-0.419		2.562*		-3.056**		-0.231			
직업	학생	3.78		3.70	AB	4.31	A	2.85	B	3.71	AB		
	전문직, 관리직	3.92		3.92	A	4.12	AB	3.44	A	3.87	A		
	사무직, 서비스직	4.12		3.95	A	4.38	A	3.37	A	3.97	A		
	주부, 무직	3.80		3.50	B	3.83	B	2.85	B	3.50	B		
F비		1.283		2.824*		3.663*		5.023**		3.594*			
학력	고졸 이하	3.99		3.80		4.22		3.08		3.79			
	전문대졸 이상	3.91		3.85		4.17		3.32		3.84			
t값		0.503		-0.472		0.401		-1.639		-0.463			
월평균 소득액	상(280만원 이상)	3.70	B	3.83		4.09		3.31	A	3.77	B		
	중(130~280만원)	4.23	A	3.97		4.33		3.56	A	4.02	A		
	하(130만이하)	3.86	B	3.71		4.15		2.84	B	3.67	B		
F비		6.301**		1.863		1.828		9.991***		5.218**			
월평균 소비액	상(160만원 이상)	3.73		3.82		3.96	B	3.35		3.74			
	중(70~160만원)	4.01		3.89		4.30	A	3.28		3.89			
	하(70만원 이하)	4.06		3.79		4.30	A	3.08		3.83			
F비		2.512		0.299		4.353*		1.309		0.850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P < 0.01 ***P < 0.001

< 표 4-10 >를 통해서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자원절약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연령(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20대보다 50대 중국소비자들의 자원절약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자원관리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월평균 소득액(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월평균 소득 상층집단 중국소비자들의 자원관리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환경보존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직업(P<0.05), 월평균 소득액(P<0.01), 월평균 소비액(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전문직, 관리직, 월평균 소득액 상층집단, 월평균 소비액 상층집단의 중국소비자들의 환경보존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환경보존 참여의향의 차이를 본 결과, 월평균 소득액(P<0.01), 월평균 소비액(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월평균 소득액 상, 중층집단, 월평균 소비액 상층집단의 중국소비자들의 환경보존 참여의향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전체 녹색소비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월평균 소득액(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월평균 소득액 상, 중층집단의 중국소비자들의 자원절약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 표 4-10 >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원절약의식		자원관리 의식		환경보존 의식		환경보존 참여의향		전체	
		M	D	M	D	M	D	M	D	M	D
성별	남	3.90		3.97		4.55		3.80		4.10	
	여	4.06		4.00		4.69		3.92		4.20	
t값		-0.997		-0.335		1.967		-0.939		-1.290	
연령	20대	3.81		3.94		4.58		3.82		4.09	
	50대	4.18		4.03		4.66		3.90		4.22	
t값		-2.856*		-0.762		-1.042		-0.670		-1.572	
직업	학생	3.88		4.00		4.33	C	3.89		4.06	
	전문직, 관리직	4.10		4.04		4.74	A	3.71		4.19	
	사무직, 서비스직	3.97		4.03		4.64	AB	3.96		4.19	
	주부, 무직	4.00		3.58		4.44	BC	3.58		3.91	
F비		0.318		2.309		3.651*		1.554		1.755	
학력	고졸 이하	3.83		4.01		4.52		3.89		4.11	
	전문대졸 이상	4.02		3.98		4.64		3.85		4.16	
t값		-1.128		0.207		-1.303		0.207		-0.482	
월평균 소득액	상(280만원 이상)	4.06		4.24	A	4.80	A	4.03	A	4.34	A
	중(130~280만원)	4.00		4.04	AB	4.63	AB	4.04	A	4.22	A
	하(130만이하)	3.95		3.78	B	4.50	B	3.57	B	3.98	B
F비		0.204		5.740**		4.933**		6.549**		6.840**	
월평균 소비액	상(160만원 이상)	3.76		4.15		4.74	A	4.02	A	4.16	
	중(70~160만원)	4.07		3.96		4.60	AB	3.96	AB	4.22	
	하(70만원 이하)	4.05		3.90		4.46	B	3.64	B	4.08	
F비		1.907		1.611		4.768*		3.282*		1.116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P < 0.01 ***P < 0.001

3.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는 소비자의 환경문제 관심도와 녹색소비 관련정보탐색의 2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를 5점 만점의 기준을 바탕으로 상, 중, 하 3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을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 표 4-11 >, < 표 4-12 >와 같다.

< 표 4-11 > 한국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종속변수		자원절약 의식		자원관리의 의식		환경보존 의식		환경보존 참여의향		전체	
		M	D	M	D	M	D	M	D	M	D
환경문제 관심도	상	4.58	A	4.56	A	4.76	A	4.35	A	4.58	A
	중	3.96	B	3.88	B	4.20	B	3.34	B	3.87	B
	하	3.66	B	3.51	C	3.96	B	2.71	C	3.48	C
F비		13.510***		29.553***		14.073***		55.176***		48.683***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	상	4.53	A	4.25	A	4.65	A	4.29	A	4.43	A
	중	3.88	B	3.91	B	4.16	B	3.43	B	3.87	B
	하	3.86	B	3.67	B	4.12	B	2.82	C	3.64	B
F비		4.893**		5.639**		3.994*		28.440***		13.079***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P < 0.01 ***P < 0.001

※ 각 하위 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 M+1/2SD 이상, 중 : M-1/2SD ~ M+1/2SD , 하 : M-1/2SD 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함

< 표 4-11 >는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항목은 상집단 한국소비자가 중, 하 집단 소비자보다 녹색소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 표 4-12 > 중국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종속변수		자원절약의식		자원관리의식		환경보존의식		환경보존참여의향		전체	
		M	D	M	D	M	D	M	D	M	D
환경문제 관심도	상	4.34	A	4.40	A	4.80	A	4.29	A	4.49	A
	중	3.85	B	3.85	B	4.58	B	3.81	B	4.06	B
	하	3.77	B	3.68	C	4.46	C	3.41	C	3.87	C
F비		7.866**		19.301***		7.996**		16.663***		26.042***	
녹색소비정 보 관련탐색	상	4.17		4.25	A	4.75		4.31	A	4.41	A
	중	3.95		3.99	B	4.54		3.76	B	4.10	B
	하	3.87		3.71	C	4.62		3.54	B	3.97	B
F비		1.654		7.615**		2.965		12.316***		9.884***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P < 0.01 ***P < 0.001

※ 각 하위 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 M+1/2SD 이상, 중 : M-1/2SD ~ M+1/2SD , 하 : M-1/2SD 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함

< 표 4-12 >는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에 따른 자원절약의식과 환경보존의식은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지만 나머지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항목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집단 중국소비자가 중, 하집단 소비자보다 녹색소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4.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을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 표 4-13 >, < 표 4-14 >와 같다.

< 표 4-13 >은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 표 4-13 >를 통해서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자원절약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필요성($P<0.05$), 의향($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이 '필요하다', '참여하겠다'라는 한국소비자들의 자원절약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자원관리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01$), 의향($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다', '참여하겠다'라는 한국소비자들의 자원관리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환경보존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1$), 필요성($P<0.05$), 의향($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다', '녹색소비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에 참여하겠다'라는 한국소비자들의 환경보존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환경보존 참여의향의 차이를 본 결과, 의향($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에 참여하겠다'라는 한국소비자들의 환경보존 참여의향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전체 녹색소비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1$), 의향($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다', '녹색소비교육에 참여하겠다'라는 한국소비자들의 전체 녹색소비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 표 4-13 > 한국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원절약의식		자원관리 의식		환경보존 의식		환경보존 참여의향		전체	
		M	D	M	D	M	D	M	D	M	D
경험	있다	4.17		4.23		4.51		3.42		4.12	
	없다	3.87		3.73		4.10		3.19		3.74	
t값		1.901		3.847***		3.041**		1.313		3.277**	
필요성	필요하다	3.97		3.86		4.23		3.24		3.85	
	필요하지 않다	3.50		3.54		3.79		3.28		3.55	
t값		2.061*		1.666		2.234*		-0.187		1.738	
의향	참여하겠다	4.03		3.94		4.30		3.36		3.93	
	참여하지 않겠다	3.60		3.50		3.81		2.84		3.46	
t값		2.874**		3.467**		3.855***		3.228**		4.361***	
원하는 교육담당자	정부	3.98		3.87		4.24		3.16		3.84	
	사회단체, 민간기구	3.83		3.68		4.07		3.22		3.72	
	학교	3.94		4.02		4.32		3.31		3.94	
	종교단체, 가정	4.13		3.87		4.18		3.35		3.89	
F비		0.732		1.903		1.034		0.331		1.079	
원하는 교육방식	실습, 체험	4.06		3.83		4.10		3.21		3.81	
	시청각	3.70		3.89		4.35		3.17		3.84	
	현장학습, 견학	3.97		3.83		4.30		3.30		3.87	
	강의	3.79		3.79		4.08		3.32		3.77	
F비		1.584		0.090		1.382		0.205		0.160	
원하는 교육내용	자원절약	3.98		3.91		4.29		3.39		3.92	
	환경보전	4.06		3.89		4.21		3.22		3.86	
	녹색에너지, 녹색소비정책	3.81		3.76		4.14		3.20		3.75	
F비		1.599		0.826		0.493		0.442		0.898	

*P < 0.05 **P < 0.01 ***P < 0.001

< 표 4-14 >은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 표 4-14 >를 통해서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자원절약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의향($P<0.05$), 원하는 교육방식($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에 참여하겠다’, ‘원하는 교육방식은 시청각이다’라는 중국소비자들의 자원절약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자원관리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다’는 중국소비자들의 자원관리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환경보존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의향($P<0.01$), 원하는 교육내용($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참여하겠다’, ‘원하는 교육내용은 자원절약이다’라는 중국소비자들의 환경보존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환경보존 참여의향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5$), 의향($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다’, ‘녹색소비교육 참여하겠다’는 중국소비자들의 환경보존 참여의향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전체 녹색소비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5$), 의향($P<0.01$), 원하는 교육내용($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다’, ‘녹색소비교육에 참여하겠다’, 원하는 교육내용은 자원절약과 녹색에너지를 선택하는 중국소비자들의 전체 녹색소비의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 표 4-14 > 중국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원절약 의식		자원관리 의식		환경보존 의식		환경보존 참여의향		전체	
		M	D	M	D	M	D	M	D	M	D
경험	있다	4.06		4.14		4.63		4.03		4.25	
	없다	3.95		3.88		4.61		3.75		4.09	
t값		0.794		2.384*		0.247		2.076*		2.035*	
필요성	필요하다	4.00		3.99		4.63		3.85		4.15	
	필요하지 않다	4.00		4.05		4.30		4.20		4.15	
t값		-0.018		-0.221		1.635		-0.960		-0.05	
의향	참여하겠다	4.04		4.00		4.66		3.91		4.19	
	참여하지 않겠다	3.59		3.86		4.31		3.40		3.85	
t값		2.100*		0.800		2.981**		2.474*		2.632**	
원하는 교육담당자	정부	4.01		3.97		4.59		3.77	B	4.12	
	사회단체, 민간기구	3.93		3.93		4.68		3.74	B	4.12	
	학교	3.98		4.07		4.64		4.22	A	4.27	
	종교단체, 가정	4.10		3.95		4.75		3.67	B	4.15	
F비		0.077		0.236		0.448		2.985*		0.767	
원하는 교육방식	실습, 체험	4.14	AB	4.01		4.66		3.88		4.20	
	시청각	4.53	A	4.08		4.70		3.68		4.25	
	현장학습, 견학	3.90	B	3.99		4.61		3.92		4.15	
	강의	3.25	C	3.59		4.38		3.46		3.75	
F비		6.422***		1.064		1.102		1.192		2.142	
원하는 교육내용	자원절약	4.03		4.00		4.73	A	4.00		4.23	
	환경보전	4.02		3.98		4.64	AB	3.78		4.11	
	녹색에너지, 녹색소비정책	3.91		3.97		4.52	B	3.82		4.13	
F비		0.276		0.019		3.085*		1.135		0.901	

*P < 0.05 **P < 0.01 ***P < 0.001

5.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비교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결과를 본 때, 한국에서 20대소비자는 50대보다 환경보존의식이 더 높지만 환경보존참여의식이 낮다. 한국 20대소비자 50대보다 경제능력 등 한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업에 따라 녹색소비의식의 차이가 많이 볼 수 있고 중국에서 소득액에 따라 녹색소비의식의 차이가 많이 볼 수 있다.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결과를 본 때, 한국과 중국 다 환경문제 관심도가 높고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이 높을수록 녹색소비의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중국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정보원천인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체적인 녹색소비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접하는 것이 녹색소비의식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생각된다.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의식 결과를 본 때, 한국과 중국 다 교육경험 있고 녹색소비교육이 참여하겠다는 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데 한국에서 녹색소비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보존의식의 차이도 볼 수 있고 중국에서 소비자의 원하는 녹색소비교육 내방식과 내용에 따라 녹색소비의식의 차이도 볼 수 있다.

제3절 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수준

< 표 4-15 녹색소비행동 요인분석 >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Cronbach's α				
1. 전자 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한다.	.715	.048	.138	0.639				
2.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이나 업체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환경마크를 확인하여 구입한다.	.758	.314	.219					
3. 사용하지 않은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는다.	.329	.684	.122	0.849				
4. 냉방 온도를 1도 올리고, 난방 온도를 1도 낮춘다.								
5.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은 거절한다.								
6. 노트에 함부로 낙서하지 않고 아껴쓰면, 이면지를 활용한다.								
7. 물건은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오래 사용한다.								
8. 등산이나 캠핑을 갔을 때, 버려진쓰레기가 있다면 가져오겠다.								
9.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49	.211	.762	0.850
10. 건전지는 분리수거함에 버린다.								
11. 알뜰시장, 버룩시장, 녹색가게, 재활용센터 등 시설을 적극 이용한다.								
12. 생필품 중에서 쓸 만한 물건은 친구들과 교환하여 쓴다.								
고유치	1.063	5.662	1.098					
요인적재값	8.861	47.184	9.150					
누적적재값	65.195	47.184	56.334					
평균	3.99	3.92	3.80					

녹색소비행동 내용 12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더니 < 표 4-15 >와 같이 나타났다. 문항 1, 2를 요인 1로, 문항 3, 4, 5, 6, 7, 8를 요인 2

로, 문항 9, 10, 11, 12를 요인3으로 묶을 수 있었다. 요인 1의 평균이 3.99로 가장 높았고, 요인 3의 평균이 3.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인 1은 0.639, 요인 2는 0.849, 요인 3은 0.850의 신뢰성을 보였다.

요인들의 공통되는 것을 찾아 요인 1을 구매행동, 요인 2를 사용행동, 요인3을 처분행동을 정하였다.

1. 한국과 중국소비자 녹색소비행동의 수준

한국과 중국소비자는 녹색소비행동에 대한 12개 측정항목 중 1개 유형만 제외하고 평균 (M=3.00) 이상의 분포를 보여 한국과 중국소비자들은 녹색소비행동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녹색소비행동 12개 측정항목 중 ‘전자 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한다. (한국 M=4.08, 중국 M=4.36)’가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알뜰시장, 베퉼시장, 녹색가게, 재활용센터 등 시설을 적극 이용한다. (한국 M=2.81 중국 M=2.91)’가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 표 4-16 >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12개 측정항목 중 6개 문항(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는다;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은 거절한다. 물건은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오래 사용한다. 등산이나 캠핑을 갔을 때, 버려진 쓰레기가 있다면 가져오겠다.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알뜰시장, 베퉼시장, 녹색가게, 재활용센터 등 시설을 적극 이용한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6개 문항을 보았을 때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녹색소비행동은 녹색소비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행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는 < 표 4-16 >와 같다.

< 표 4-16 >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의 차이

녹색소비행동		한 국		중 국		T
		M	SD	M	SD	
구매 행동	1. 전자 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한다.	4.08	0.910	4.36	0.685	-2.991**
	2.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이나 업소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환경마크를 확인하여 구입한다.	3.24	1.053	3.99	0.873	-6.820***
	전체	3.66	0.792	4.17	0.659	-6.179***
사용 행동	3. 사용하지 않은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는다.	3.63	1.205	3.80	1.063	-1.262
	4. 냉방 온도를 1도 올리고, 난방온도를 1도 낮춘다.	3.43	1.083	3.89	0.984	-3.934***
	5.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은 거절한다.	3.76	1.034	3.95	0.919	-1.641
	6. 노트에 함부로 낙서하지 않고 아껴 쓰면, 이면지를 활용한다.	3.61	1.186	4.10	0.859	-4.154***
	7. 물건은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오래 사용한다.	3.86	1.061	3.94	0.908	-0.697
	8. 등산이나 캠핑을 갔을 때, 버려진 쓰레기가 있다면 가져오겠다.	3.53	1.085	3.35	1.081	1.483
	전체	3.61	0.848	3.99	0.702	-4.359***
	9.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3.65	1.099	3.41	1.142	1.842
처분 행동	10. 건전지는 분리수거함에 버린다.	3.03	1.165	3.36	1.160	-2.467*
	11. 알뜰시장, 베품시장, 녹색가게, 재활용센터 등 시설을 적극 이용한다.	2.81	1.211	2.91	1.151	-0.777
	12. 생필품 중에서 쓸 만한 물건은 친구들과 교환하여 쓴다.	3.34	1.180	4.29	0.843	-8.055***
	전체	3.21	0.921	3.49	0.977	-0.030
	전체	3.50	0.760	3.78	0.674	-3.419**

*P < 0.05 **P < 0.01 ***P < 0.001

2.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을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 표 4-17 >, < 표 4-18 >와 같다.

< 표 4-17 >은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를 나타냈다.

< 표 4-17 >를 통해서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구매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직업($P<0.01$), 학력($P<0.01$), 월평균 소득액($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대졸 이상, 월평균 소득액 중층집단의 한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구매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사용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성별($P<0.05$), 직업($P<0.05$), 월평균 소득액($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월평균 소득액 중층집단의 한국여성소비자들의 녹색소비사용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처분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연령($P<0.01$), 직업($P<0.05$), 월평균 소득액($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50대, 전문직, 관리직, 월평균 소득액 중층집단의 한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 처분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전체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직업($P<0.05$), 월평균 소득액($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월평균 소득액 중층집단의 한국소비자들의 전체 녹색소비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 표 4-17 > 한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종속변수 독립변수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전체	
		M	D	M	D	M	D	M	D
성별	남	3.62		3.47		3.16		3.39	
	여	3.70		3.74		3.35		3.60	
t값		-0.613		-1.996*		-1.280		-1.737	
연령	20대	3.62		3.52		3.05		3.38	
	50대	3.70		3.69		3.45		3.61	
t값		-0.613		-1.278		-2.696**		-1.902	
직업	학생	3.33	B	3.19	B	2.90	B	3.12	B
	전문직, 관리직	3.80	A	3.75	A	3.46	A	3.66	A
	사무직, 서비스직	3.85	A	3.67	A	3.32	AB	3.58	A
	주부, 무직	3.25	B	3.58	AB	2.98	B	3.33	AB
F비		5.146**		2.929*		3.205*		3.954*	
학력	고졸 이하	3.39		3.54		3.13		3.38	
	전문대졸 이상	3.79		3.64		3.32		3.56	
t값		-3.017**		-0.681		-1.183		-1.359	
월평균 소득액	상(280만원 이상)	3.64	B	3.49	B	3.30	AB	3.45	B
	중(130~280만원)	3.94	A	3.94	A	3.51	A	3.80	A
	하(130만원이하)	3.38	B	3.37	B	2.96	B	3.24	B
F비		6.952**		6.850**		4.929**		7.737**	
월평균 소비액	상(160만원 이상)	3.63		3.45		3.21		3.40	
	중(70~160만원)	3.82		3.81		3.45		3.69	
	하(70만원 이하)	3.51		3.54		3.10		3.39	
F비		2.031		2.575		1.971		2.717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P < 0.01 ***P < 0.001

< 표 4-18 >은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를 나타냈다.

< 표 4-18 >를 통해서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구매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연령(P<0.01), 월평균 소득액(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50대, 월평균 소득액 상층집단의 중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구매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사용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연

령(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20대보다 50대 중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사용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전체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연령(P<0.01), 월평균 소득액(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50대, 월평균소득 상층집단의 중국소비자들의 전체 녹색소비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 표 4-18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종속변수 독립변수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전체	
		M	D	M	D	M	D	M	D
성별	남	4.14		3.88		3.23		3.71	
	여	4.21		4.11		3.29		3.85	
t값		-0.675		-1.963		-0.414		-1.326	
연령	20대	4.03		3.84		3.11		3.63	
	50대	4.32		4.15		3.41		3.92	
t값		-2.700**		-2.816**		-1.926		-2.852**	
직업	학생	3.88		3.99		3.10		3.67	
	전문직, 관리직	4.10		4.05		3.29		3.81	
	사무직, 서비스직	4.26		4.01		3.32		3.82	
	주부, 무직	4.06		3.78		2.95		3.55	
t값		1.652		0.586		0.759		0.850	
학력	고졸 이하	4.17		4.15		3.58		3.97	
	전문대졸 이상	4.18		3.96		3.19		3.74	
F비		-0.086		1.417		2.009		1.628	
월평균 소득 액	상(280만원 이상)	4.52	A	4.11		3.59		4.01	A
	중(130~280만원)	4.22	B	4.07		3.24		3.82	AB
	하(130만이하)	3.94	C	3.85		3.09		3.61	B
F비		8.950***		2.111		2.768		3.830*	
월평균 소비 액	상(160만원 이상)	4.21		3.97		3.56		3.87	
	중(70~160만원)	4.25		4.05		3.103.		3.77	
	하(70만원 이하)	4.07		3.95		24		3.73	
F비		1.061		0.318		2.498		0.48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05 **P < 0.01 ***P < 0.001

3.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을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 표 4-19 >, < 표 4-20 >와 같다.

< 표 4-19 > 한국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종속변수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전체	
		M	D	M	D	M	D	M	D
환경문제 관심도	상	4.44	A	4.50	A	4.18	A	4.38	A
	중	3.65	B	3.59	B	3.19	B	3.47	B
	하	3.37	B	3.28	B	2.97	B	3.19	B
F비		19.930***		23.539***		18.693***		29.617***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	상	4.43	A	4.39	A	3.98	A	4.26	A
	중	3.88	B	3.66	B	3.51	B	3.65	B
	하	3.27	C	3.38	B	2.84	C	3.18	C
F비		23.797***		10.084***		17.338***		18.260***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P < 0.01 ***P < 0.001

※ 각 하위 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 M+1/2SD 이상, 중 : M-1/2SD ~ M+1/2SD, 하 : M-1/2SD 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함

< 표 4-20 > 중국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종속변수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전체	
		M	D	M	D	M	D	M	D
환경문제 관심도	상	4.56	A	4.39	A	3.87	A	4.25	A
	중	4.06	B	3.82	B	3.06	B	3.61	B
	하	3.87	B	3.76	B	2.79	B	3.45	B
F비		17.094***		14.386***		20.003***		24.914***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	상	4.40	A	4.22	A	3.71	A	4.08	A
	중	4.13	B	4.00	AB	3.15	B	3.74	B
	하	4.01	B	3.74	B	2.97	B	3.53	B
F비		3.942*		5.302**		7.350**		7.934**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P < 0.01 ***P < 0.001

※ 각 하위 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 $M+1/2SD$ 이상, 중 : $M-1/2SD$
~ $M+1/2SD$, 하 : $M-1/2SD$ 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함

< 표 4-19 >, < 표 4-20 >는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정보 관련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를 나타냈다.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녹색소비행동은 상집단 소비자들이 중, 하집단 소비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4.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을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 표 4-21 >, < 표 4-22 >와 같다.

< 표 4-21 >은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를 나타냈다.

< 표 4-21 >를 통해서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구매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다’라는 한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구매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사용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5$), 필요성($P<0.05$), 의향($P<0.01$), 원하는 교육 담당자($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다’, ‘녹색소비교육 필요하다’, ‘참여하겠다’, ‘원하는 교육 담당자는 종교단체, 가정이다’라는 한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사용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처분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1$), 의향($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다’, ‘녹색소비교육 참여하겠다’는 한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 처분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전체 녹색소비행동의 차이

를 본 결과, 경험(P<0.01), 의향(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 있다’, ‘녹색소비교육 참여하겠다’는 한국소비자들의 전체 녹색소비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 표 4-21 > 한국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종속변수 독립변수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전체	
		M	D	M	D	M	D	M	D
경험	있다	4.00		3.87		3.64		3.82	
	없다	3.57		3.53		3.15		3.41	
t값		2.812**		2.103*		2.710**		2.713**	
필요성	필요하다	3.65		3.65		3.26		3.52	
	필요하지 않다	3.69		3.13		3.19		3.24	
t값		-0.163		2.146*		0.280		1.264	
의향	참여하겠다	3.71		3.71		3.34		3.58	
	참여하지 않겠다	3.47		3.27		2.98		3.21	
t값		1.596		2.709**		2.057*		2.629**	
원하는 교육 담당자	정부	3.63		3.56	B	3.26		3.47	
	사회단체, 민간기구	3.49		3.34	B	3.07		3.32	
	학교	3.94		3.71	AB	3.46		3.66	
	종교단체, 가정	3.71		4.06	A	3.43		3.79	
F비		2.391		2.986*		1.537		2.628	
원하는 교육 방식	실습, 체험	3.65		3.68		3.25		3.54	
	시청각	3.48		3.57		3.18		3.43	
	현장학습, 견학	3.90		3.53		3.28		3.51	
	강의	3.50		3.53		3.31		3.45	
F비		1.948		0.341		0.088		0.154	
원하는 교육 내용	자원절약	3.76		3.83		3.41		3.68	
	환경보전	3.63		3.69		3.34		3.56	
	녹색에너지, 녹색소비정책	3.65		3.45		3.13		3.38	
F비		0.256		2.363		1.242		1.820	

*P< 0.05 **P < 0.01 ***P < 0.001

< 표 4-22 > 중국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종속변수 독립변수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전체	
		M	D	M	D	M	D	M	D
경험	있다	4.30		4.20		3.49		3.98	
	없다	4.10		3.87		3.12		3.65	
t값		1.835		2.912**		2.318*		2.953**	
필요성	필요하다	4.18		4.00		3.24		3.77	
	필요하지 않다	4.00		4.10		3.70		3.95	
t값		0.600		-0.361		-1.024		-0.573	
의향	참여하겠다	4.21		4.03		3.31		3.82	
	참여하지 않겠다	3.84		3.61		2.84		3.40	
t값		2.146*		2.322*		1.814		2.446*	
원하는 교육 담당자	정부	4.22		3.99		3.30		3.80	
	사회단체, 민간기구	4.09		3.96		3.08		3.69	
	학교	4.12		4.01		3.30		3.79	
	종교단체, 가정	4.10		4.03		3.05		3.72	
F비		0.336		0.026		0.392		0.176	
원하는 교육 방식	실습, 체험	4.27		4.11		3.23		3.85	
	시청각	4.30		4.22		3.40		3.96	
	현장학습, 견학	4.17		3.95		3.26		3.76	
	강의	3.63		3.56		3.03		3.40	
F비		2.347		2.121		0.286		1.476	
원하는 교육 내용	자원절약	4.21		4.04		3.34		3.84	
	환경보전	4.18		4.07		3.33		3.84	
	녹색에너지, 녹색소비정책	4.12		3.82		3.04		3.61	
F비		0.246		1.720		1.277		1.695	

*P < 0.05 **P < 0.01 ***P < 0.001

< 표 4-22 >은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를 나타냈다.

< 표 4-22 >를 통해서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구매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의향(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참여하겠다’라는 중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구매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사용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1$), 의향($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다’, ‘녹색소비교육 참여하겠다’는 중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사용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처분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는 중국소비자들의 녹색소비 처분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전체 녹색소비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경험($P<0.01$), 의향($P<0.05$), 원하는 교육내용($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녹색소비교육 경험이 있다’, ‘녹색소비교육에 참여하겠다’, 원하는 교육내용은 자원절약, 환경보전과 녹색에너지를 선택하는 중국소비자들의 전체 녹색소비행동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5.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비교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직업과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녹색소비행동의 유의한 차이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녹색소비구매행동수준이 더 높고 50대 한국소비자는 20대보다 녹색소비처분행동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 학력 많을수록 녹색소비지식 많이 갖추고 있으나 녹색소비생활 수준은 향상 되고 있으면서 환경을 고려한 녹색소비행동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국여성소비자는 남성보다 녹색소비사용행동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장과정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소비활동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분담을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축적되는 경험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에서는 다 환경문제 관심도가 높고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이 높을수

록 녹색소비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보탐색빈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녹색소비행동의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매체 등을 통해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에 따른 녹색소비행동 결과를 본 때, 녹색소비의식 결과처럼 한국과 중국은 다 교육경험 있고 녹색소비교육이 참여하겠다는 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데 한국에서 녹색소비교육의 필요성, 원하는 교육담당자에 따라 녹색소비사용행동의 차이도 볼 수 있다.

6.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 표 4-23 >, < 표 4-24 >와 같다.

< 표4-23 >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소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소비의식 소비행동	자원절약 의식	자원관리 의식	환경보존 의식	환경보존 참여의향	전체
구매행동	0.305**	0.462**	0.277**	0.476**	0.484**
사용행동	0.637**	0.505**	0.412**	0.444**	0.605**
처분행동	0.456**	0.543**	0.354**	0.548**	0.595**
전체	0.593**	0.582**	0.421**	0.552**	0.662**

**p<.01

< 표4-24 >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소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소비의식 소비행동	자원절약 의식	자원관리 의식	환경보존 의식	환경보존 참여의향	전체
구매행동	0.379**	0.611**	0.383**	0.516**	0.649**
사용행동	0.497**	0.372**	0.209**	0.454**	0.508**
처분행동	0.309**	0.555**	0.255**	0.519**	0.523**
전체	0.470**	0.561**	0.204**	0.571**	0.623**

**p<.01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소비행동 간에는 모든 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이 높을수록 녹색소비행동의 수행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녹색소비의식의 변화를 통해 잘못된 소비행동을 수정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개인 이기주의적 행동에서 벗어나 녹색소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제4절 한국과 중국 녹색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사회경제적변인,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녹색소비의식변수)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녹색소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경제적 변수 8개,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2개, 녹색소비의식변수 3개,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11개 등 총 24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계수가 0.5수준 이상으로 모든 변수를 분석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첫째,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직업:주부, 무직($\beta=-0.184$), 녹색소비관련 정보탐색($\beta=0.281$), 원하는 교육방식:시청각($\beta=-0.1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44.8%였다. 즉, 한국에서 사무직, 서비스직소비자는 주부, 무직보다 녹색소비구매행동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의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소비구매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청각보다 실습, 체험의 교육방식을 원하는 소비자의 녹색소비구매행동의 수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원하는 교육 담당자: 종교단체, 가정($\beta=0.198$), 자원절약의식($\beta=0.4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56.1%였다. 즉, 한국에서 사회단체, 민간기구보다 종교단체, 가정의 교육담당자를 원하는 소비자의 녹색소비사용행동의 수준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절약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소비사용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beta=0.254$), 자원절약의식($\beta=0.237$), 환경보존 참여의향($\beta=0.3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46.4%였다. 즉, 한국에서 20대보다 50대 소비자의 녹색소비처분행동의 수준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절약의식과 환경보존 참여의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소비처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한국소비자의 전체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원절약의식($\beta=0.344$), 환경보존 참여의향($\beta=0.2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56.5%였다. 즉, 한국에서 자원절약의식과 환경보존 참여의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녹색소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5 >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종속변수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전체	
		독립변수	B(β)	B(β)	B(β)	B(β)	
사회경제적 변수	성별: 여자		.014(.009)	.107(.063)	.114(.062)	.094(.062)	
	직업	학생	-.380(-.184)	-.293(-.132)	-.114(-.048)	-.248(-.125)	
		전문직, 관리직	-.163(-.102)	.161(.094)	.172(.092)	.111(.072)	
		주부, 무직	-.441(-.184)*	.045(.018)	-.069(-.025)	-.074(-.033)	
	연령: 50대		.134(.085)	.118(.070)	.467(.254)*	.237(.157)	
	학력		.169(.010)	-.045(-.025)	.085(.044)	.034(.021)	
	월평균 소득액		-.001(-.170)	-.001(-.134)	-.001(-.141)	-.001(-.162)	
환경문제 관심도		.177(.148)	.176(.138)	-.178(-.128)	.058(.051)		
녹색소비 관련정보탐색		.314(.281)**	-.005(-.004)	.139(.107)	.096(.090)		
녹색소비 교육	경험: 없다		-.214(-.111)	-.006(-.003)	-.235(-.104)	-.117(-.063)	
		필요성: 필요하다		.085(.030)	-.221(-.073)	.173(.053)	-.039(-.014)
		참여의향: 참여하겠다		.099(.053)	.056(.028)	.053(.024)	.062(.034)
	원하는 교육 담당자	정보		.213(.121)	.045(.024)	.285(.140)	.153(.091)
		학교		.207(.109)	.209(.103)	.340(.154)	.252(.139)
	원하는 교육 방식	종교단체, 가정		-.043(-.018)	.506(.198)**	.172(.062)	.303(.132)
		시청각		-.400(-.193)*	.123(.056)	-.009(-.004)	-.008(-.004)
		현장학습, 견학		.198(.106)	-.092(-.048)	.128(.059)	.030(.017)
	원하는 교육 내용	강의		-.358(-.165)	-.112(-.048)	.165(.065)	-.061(-.029)
		자원절약 녹색에너지, 녹색소비 정책		-.142(-.067)	.156(.068)	.095(.038)	.086(.042)
자원절약의식		.030(.030)	.460(.435)***	.272(.237)**	.325(.344)***		
환경보존의식		.038(.033)	.107(.086)	.220(.164)	.133(.120)		
환경보존 참여의향		.135(.147)	.110(.112)	.343(.322)**	.192(.218)*		
R 제곱		0.448	0.561	0.464	0.565		
상수		2.674**	0.568	0.015	0.849		
F 값		4.514***	7.108***	4.814***	7.242***		

*P < 0.05 **P < 0.01 ***P < 0.001

기준: 성별(남자), 직업(사무직 서비스직), 연령(20대), 교육 경험(있다), 교육 필요성(필요하지 않다), 교육 참여의향(참여하지 않겠다), 원하는 교육 담당자(사회단체, 민간기구), 원하는 교육방식(실습, 체험), 원하는 교육내용(환경보전).

2.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첫째,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환경보존 참여의향($\beta=0.3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44.9%였다. 즉, 중국에서 환경보존 참여의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소비구매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원절약의식($\beta=0.342$), 환경보존 참여의향($\beta=0.2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48.1%였다. 즉, 중국에서 자원절약의식과 환경보존 참여의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소비사용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력(-0.291), 환경문제관심도($\beta=0.311$), 자원절약의식($\beta=0.254$), 환경보존의식($\beta=0.279$), 환경보존 참여의향($\beta=0.38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48.6%였다. 즉, 중국에서 학력이 낮고 환경문제관심도가 높고 자원절약의식, 환경보존의식과 환경보존 참여의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소비처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중국소비자의 전체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력(-0.230), 환경문제관심도($\beta=0.238$), 자원절약의식($\beta=0.327$), 환경보존의식($\beta=0.162$), 환경보존 참여의향($\beta=0.3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57.8%였다. 즉, 중국에서 학력이 낮고 환경문제관심도가 높고 자원절약의식, 환경보존의식과 환경보존 참여의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녹색소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6 >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종속변수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전체	
		B(β)	B(β)	B(β)	B(β)	
사회경제적 변수	성별: 여자	-.010(-.007)	.173(.123)	.001(.001)	.085(.063)	
	직업					
	학생	-.359(-.147)	-.133(-.051)	-.573(-.158)	-.317(-.127)	
	전문직, 관리직	-.192(-.122)	.043(.026)	.127(.055)	.032(.020)	
	주부, 무직	.037(.017)	-.187(-.082)	-.140(-.044)	-.134(-.061)	
	연령: 50대	.034(.026)	.074(.053)	-.231(-.119)	-.034(-.026)	
	학력	-.148(-.086)	-.265(-.145)	-.743(-.291)**	-.405(-.230)**	
월평균 소득액	.004(.005)	-.063(-.087)	.117(.116)	.006(.010)		
환경문제관심도	.089(.107)	.121(.136)	.386(.311)**	.204(.238)**		
녹색소비 관련정보탐색	.043(.049)	.045(.048)	.015(.012)	.035(.039)		
녹색소비 교육	경험: 없다	-.224(-.166)	-.201(-.140)	-.199(-.100)	-.204(-.148)	
	필요성: 필요하다	-.224(-.061)	.146(.037)	.315(.058)	.141(.037)	
	참여의향: 참여하겠다	.043(.020)	-.123(-.054)	-.102(-.032)	-.088(-.040)	
	원하는 교육 담당자	정보	.211(.157)	-.070(-.049)	.090(.045)	.030(.022)
		학교	-.132(-.083)	-.214(-.126)	-.102(-.043)	-.163(-.100)
		종교단체, 가정	.241(.065)	.119(.030)	.128(.024)	.143(.038)
	원하는 교육 방식	시청각	-.132(-.068)	-.046(-.022)	.030(.010)	-.035(-.017)
		현장학습, 견학	-.119(-.087)	-.093(-.064)	.158(.078)	-.014(-.010)
		강의	-.443(-.151)	-.259(-.083)	.172(.039)	-.146(-.049)
	원하는 교육 내용	자원절약	-.005(-.004)	-.122(-.081)	-.039(-.019)	-.075(-.052)
		녹색에너지, 녹색 소비 정책	.021(.014)	-.158(-.099)	-.206(-.092)	-.144(-.094)
자원절약의식	.127(.157)	.295(.342)***	.305(.254)**	.271(.327)***		
환경보존의식	.215(.125)	-.153(-.097)	.609(.279)**	.244(.162)*		
환경보존 참여의향	.282(.345)***	.245(.282)***	.471(.388)***	.327(.390)***		
R 제곱	0.449	0.481	0.486	0.578		
상수	2.369*	4.013***	3.129**	4.423***		
F 값	4.532***	5.149***	5.270***	7.607***		

*P < 0.05 **P < 0.01 ***P < 0.001

기준: 성별(남자), 직업(사무직 서비스직), 연령(20대), 교육 경험(있다), 교육 필요성(필요하지 않다), 교육 참여의향(참여하지 않겠다), 원하는 교육 담당자(사회단체, 민간기구), 원하는 교육방식(실습, 체험), 원하는 교육내용(환경보전).

3.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표 4-27 > 한국과 중국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교

종속변수		구대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	전체	
독립변수		B(β)	B(β)	B(β)	B(β)	
사회경제적 변수	국적: 중국	.089(.058)	.292(.182)**	-.358(-.189)**	.041(.028)	
	성별: 여자	.049(.032)	.155(.097)*	.048(.025)	.101(.070)	
	직업	학생	-.253(-.110)	-.130(-.055)	-.138(-.138)	-.153(-.070)
		전문직, 관리직	-.188(-.114)*	.051(.030)	.040(.020)	.007(.005)
		주부, 무직	-.210(-.088)	-.028(-.012)	-.186(-.064)	-.111(-.049)
	연령: 50대	.042(.027)	.041(.026)	.104(.055)	.062(.042)	
	학력	.086(.049)	-.104(-.057)	-.220(-.102)	-.111(-.067)	
	월평균 소득액	.012(.012)	-.075(-.067)	.095(.072)	-.004(-.004)	
환경문제관심도	.252(.241)***	.330(.305)***	.323(.251)***	.315(.318)***		
녹색소비 관련정보탐색	.231(.228)***	.133(.127)*	.276(.221)***	.197(.205)***		
녹색소비 교육	경험: 없다	-.065(-.039)	.021(.012)	.123(.059)	.040(.025)	
	필요성: 필요하다	-.037(-.011)	-.213(-.063)	.106(.026)	-.077(-.025)	
	참여의향: 참여하겠다	.012(.006)	-.135(-.063)	-.095(-.037)	-.097(-.050)	
	원하는 교육 담당자	정보	.154(.099)	-.053(-.033)	.124(.065)	.041(.028)
		학교	.138(.074)	.063(.032)	.215(.094)	.126(.071)
		종교단체, 가정	.066(.023)	.381(.129)*	.128(.036)	.244(.090)
	원하는 교육 방식	시청각	-.176(-.082)	-.039(-.017)	.006(.002)	-.046(-.023)
		현장학습, 견학	.011(.007)	-.165(-.102)	.060(.032)	-.061(-.041)
		강의	-.339(-.135)*	-.283(-.109)*	.008(.003)	-.195(-.082)
	원하는 교육 내용	자원절약	.037(.021)	.026(.014)	.020(.009)	.026(.015)
녹색에너지, 녹색 소비 정책		-.027(-.017)	-.188(-.133)*	-.189(-.095)	-.162(-.106)*	
자원절약의식	.089(.093)	.296(.299)***	.301(.257)***	.263(.291)***		
환경보존의식	.016(.013)	.080(.062)	.030(.020)	.053(.044)		
환경보존 참여의향	.092(.106)	-.049(-.054)	.066(.062)	.013(.016)		
R 제곱	0.402	0.444	0.355	0.474		
상수	3.193**	2.120*	-.119	1.737		
F 값	7.790***	9.257***	6.371***	10.448***		

*P < 0.05 **P < 0.01 ***P < 0.001

기준: 국적(한국), 성별(남자), 직업(사무직 서비스직), 연령(20대), 교육 경

험(있다), 교육 필요성(필요하지 않다), 교육 참여의향(참여하지 않겠다), 원하는 교육 담당자(사회단체, 민간기구), 원하는 교육방식(실습, 체험), 원하는 교육내용(환경보전).

첫째,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직업: 전문직, 관리직($\beta=-0.114$), 환경문제관심도($\beta=0.241$), 녹색소비관련 정보탐색($\beta=0.228$), 원하는 교육방식: 강의($\beta=-0.1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40.2%였다. 즉, 사무직, 서비스직소비자는 전문직, 관리직보다 녹색소비구매행동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문제관심도와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의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소비구매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의보다 실습, 체험의 교육방식을 원하는 소비자의 녹색소비구매행동의 수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국적: 중국($\beta=0.182$), 성별($\beta=0.097$), 환경문제관심도($\beta=0.305$),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beta=0.127$), 원하는 교육 담당자: 종교단체, 가정($\beta=0.129$), 원하는 교육 방식: 강의($\beta=-0.109$), 원하는 교육 내용: 녹색에너지, 녹색소비정책($\beta=-0.133$), 자원절약의식($\beta=0.29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44.4%였다. 즉, 한국보다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사용행동의 수준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녹색소비사용행동의 수준 높게 나타났다. 또 사회단체, 민간기구보다 종교단체, 가정의 교육 담당자이고 강의보다 실습, 체험의 교육방식이고 녹색에너지, 녹색소비정책보다 환경보전의 교육내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녹색소비사용행동의 수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문제관심도와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의 수준이 높고 자원절약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소비사용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국적: 중국($\beta=-0.189$), 환경문제관심도($\beta=0.251$),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beta=0.221$), 자원절약의식($\beta=0.2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35.5%였다. 즉, 중국보다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처분행동의 수준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문제관심도와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의 수준이 높고 자원절약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소비처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전체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환경문제관심도($\beta=0.318$),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beta=0.205$), 원하는 교육 내용: 녹색에너지, 녹색소비정책($\beta=-0.106$), 자원절약의식($\beta=0.2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설명력은 47.4%였다. 즉, 녹색에너지, 녹색소비정책보다 환경보전의 교육내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전체 녹색소비행동의 수준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문제관심도와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의 수준이 높고 자원절약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녹색소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녹색소비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한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 녹색소비의식 및 녹색소비행동 변수들을 추출하여 실증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한국 서울 및 중국 소주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와 50대 이상의 한국소비자 152명과 중국소비자 152명 남녀로 선정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로 선출하여 총 304부를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t-검정,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환경문제관심도와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은 보통(M=3.00)이상 점수를 나타내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요즘 한국과 중국의 환경문제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환경문제 관심이 증대했다. 한국과 중국소비자들이 녹색소비관련 정보를 주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접하므로 관련프로그램의 양과 질이 늘어나야 하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환경문제 더 심각하게 나타나서 중국 소비자의 정보탐색 정도(평균 3.33점)는 한국소비자의 정보탐색 정도(평균 2.9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다 중국소비자의 탐색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에 차이가 있다. 이 조사를 통해 녹색소비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한국소비자는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 직업, 월평균 소득액,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중 경험, 의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중국소비자는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 월평균 소득액,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교육 관련변수 중 경험, 의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평균 비율을 비교한 결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 수준이 한국소비자보다 높다는 결론을 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녹색소비의식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녹색소비의식을 토대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자원절약의식, 환경보존 참여의향도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으며,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환경문제 관심도, 자원절약의식, 환경보존의식, 환경보존참여의향도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전체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경문제관심도, 녹색소비정보 관련탐색, 원하는 교육내용, 자원절약의식도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넷째,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 및 녹색소비행동은 한국소비자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유는 한국과 중국 환경 및 녹색소비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다. 요즘 중국에서 환경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경제발전과 함께 중국소비자들은 녹색소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건강위험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녹색소비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증대 되고 있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소비의식은 녹색소비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절약의식은 녹색소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녹색소비의식이 녹색소비행동보다 높은 수순을 나타내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실천하는 생활태도로 이어지지 못해도 있음을 수 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소비행동의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소비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지금의 녹색소비교육이 조금 더 실용적이며 실생활과 연관성 있는 학습으로 발전되어야 하겠다. 특히 20대소비자들이 녹색소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교육기과에서 녹색소비교육 강화를 통한 녹색소비에 대한 정보와 지식수준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소비행동보다 환경을 고려한 녹색소비행동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녹색소비교육이 많을수록 녹색소비의식 및 녹색소비행동이 높아진다는 결론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녹색소비교육이 비단 학교, 정부에서만 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사회의 연계지도를 통해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어진다. 녹색소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에 대한 수용을 위해 녹색교육과정 및 경험 속에서 다양한 홍보와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과 환경단체 그리고 방송, 인터넷, 책 등 대중매체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녹색소비정보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달방법이 요구된다. 녹색소비에 대한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다양한 체험,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이 필요하다. 알뜰바자회 개

최, 그린스토어 방문 등 녹색소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푸드 마일리지, 탄소발자국 등 교과수업시간의 체험해볼 수 있는 실습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은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자원의 낭비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하게 되었다는데 다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데 있다. 그리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정책이 생태계 파괴를 막지 못하다는데 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들의 녹색제품에 관한 소비가 증가될 것이 확실하므로 기업에서는 점차 제품을 개발, 판매 촉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가 녹색소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중국의 낮은 도시화 수준이나 GNI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보듯이 아직 기업이나 소비자가 녹색소비의 형성이나 집행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에 모두 집중이 되어 있어 효율적인 실행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특히 대도시와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녹색소비투자의 증가로 경제와 환경을 완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현재 한국과 중국은 자국의 환경을 염구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자체나 경제발전의 차이 때문에 환경협력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환경정책발전의 공통된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환경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국제 환경회의나 환경협약에 있어 적극적이면서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내재화하여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제도의 구축과 실행시키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와 같은 경제 협력을 통한 환경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서울과 중국 소주에 거주하는 20대와 50대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과 연령층의 소비자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직업별과 다양한 연령별로 비교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부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녹색소비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소비자의 의식과 문화에 발맞추어 객관적이면서도 세대에 맞는 신뢰도 높은 척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수, 녹색소비정보 관련변수, 녹색소비 교육 관련변수, 녹색소비의식변수들이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여 연구되었으나, 그 외 여러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동양문헌>

- 고문영 역, (2002). 존라이언·앨런테인 더닝 저, [녹색시민 구보씨의 하루], 그물코, 2002, pp15-19.
- 김영신, (2009). “소비자 참여 없으면 녹색성장도 없다”, 중앙일보 2009.12.5, p37, 43판 제13961호.
- 노정구, (1996). “환경의식적 소비행동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마케팅관.
-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방안, 제 5차 녹색성장위원회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외, (2009).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 미래기획위원회, (2009). 녹색성장의 길, 중앙 books.
- 민현선, (1998).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 (2009). 녹색성장-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 혁명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활과학자들의 역할, 대한가정학회, [녹색가정·녹색생활: 생활과학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생활양식], 2009년 대한가정학회 제 62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p127-140.
- 박미정, (2009). 가정교과에서 녹색성장교육의 실천적 적용연구, 대한가정학회, [녹색가정·녹색생활: 생활과학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생활양식], 2009년 대한가정학회 제 62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p127-140.
- 박성미, (1997).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운아, (1997). “기혼여성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순영, (2010). “녹색보시 관련 2010년 전망 및 동향”, 한국소비자원, 2010.2.9 제 9호.
- 백영숙· 정상호,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웰빙트렌드 분석 및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 논집 p.22.

- 신상범, (2005). “경제적 세계화와 환경정책”,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39, 2호
- 신상범, (2005). 중국의 지방환경정책연구, -대련시의 사례- [아세아연구] 제48권 3호.
- 윤순진,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제. ECO, 13, 1, 219-266.
- 윤정숙·남규현·유복희(2005). 친환경 주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주거 디자인의 원리와 적용, 신광출판사.
- 이승신, (2003). “환경친화적인 가전소비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 연구”.
- 이정용, (2008). 한·중 환경정책에의 영향요인 비교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윤정, (200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NGO의 초국적 협력 -동북아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정대연,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함의”,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3, p33.
- 정준금, (2007). 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 정희성 외, (2003). 환경정책의 이해, 전영사.
- 조형준·홍성태 역, (2005).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하여 우리 공동의 미래, 세계환경발전위원회.
- 조혜선, (2005). 중국의 환경정책이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준환, (2009), “정부의 녹색교육 추진방향”, 녹색성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과 과제, 제 3차 평생교육정책포럼.
- 허경옥, (2009), “녹색소비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대한가정학회, [녹색가정·녹색생활: 생활과학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생활양식], 2009년 대한가정학회 제 62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27-140.
- 홍승아, (2009). 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 서울: 여성정책연구원.
- 안병호, (2003). 환경친화적인 경제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함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何志毅楊少琼, (2004). 對綠色消費行動者生活方式特征的研究, 南開管理評論

王基銘, (2009). 中國工業企業發展低碳綠色經濟的行動

공감코리아 <http://green.korea.kr/>

녹색소비자연대 <http://www.gcn.or.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환경부: 그린 스타트 운동: <http://www.greenstart.kr/>

兩型社會背景下我們綠色消費模式的构建 <http://www.bianjibu.net/post/1709.html>

<서양문헌>

Peterson Audry(1993). "Ethics Education in family and Consumer Interest",
Publication of the American council in Consumer Interests Vol 5, Number
1.

Richard Louis Edmonds, (1999). The Environ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50 Year On, The China Quarterly, No 159, Spesial Issue.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녹색소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한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 있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3월

건국대학교대학원소비자정보학과

석사과정 목 건 문

지도교수 이 승 신

I.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의 국적은? ()

- ① 한국 ② 중국

2.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나이는? 만 () 세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 년

(예 중학교졸9년, 고졸12년, 전문대 및 대졸16년, 대학원졸 이상18년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

- ①학생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관리직(자영업, 공무원 등)
⑥주부 ⑦ 무직

6. 귀하의 월평균 총소비액은? () 만원

7. 귀하의 월평균 총소득액은? () 만원

II. 귀하께서는 TV나 신문, 잡지 등에서 녹색소비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기사를 보실 때, 다음과 같은 내용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매우 관심 있게 본다	② 비교적 관심 있게 본다	③ 그저그렇 다	④ 대충본다	⑤ 무관심하 게 자나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실태					
2. 환경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녹색소비 정책, 제도에 관한 내용					
4. 재활용 이용에 관한 정보					
5. 쓰레기처리나 분리수거 방법					
6. 에너지자원의 부족한 현황					
7.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관한 정보					
8. 물이나 전기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실천방법					

Ⅲ.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제공되는 녹색소비와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① 매우 자주 접한다	② 중중 접한다	③ 가끔 접한다	④ 별로 접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접하지 않는다
1.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녹색소비에 관한 정보					
2. 인터넷을 통한 녹색소비에 관한 정보					
3. 신문, 잡지, 서적 등 인쇄매체를 통한 녹색소비에 관한 정보					
4. 정부, 소비자단체를 통한 녹색소비에 관한 정보					
5. 학교 교육을 통한 녹색소비에 관한 정보					
6. 가족이나, 이웃, 친지, 친구 등을 통한 녹색소비에 관한 정보					

IV. 다음은 귀하의 녹색소비의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소에 느끼시는 대로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① 매 우 그 렇 다	② 대 체 로 그 렇 다	③ 보 통 이 다	④ 별 로 그 렇 지 않 다	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자동차대신 자전거,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해야 한다.					
2.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등 충동구매를 피해야 한다.					
3. 중고제품이나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4. 녹색상품이 어느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5. 소비하고자 하는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6.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7. 정부는 재활용을 위한 연구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8.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해야 한다.					
9.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10. 매스컴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기업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원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다.					
12.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13. 환경오염을 시키는 제품을 친구들이 사지 않도록 적극 권유할 생각이 있다.					

V. 다음은 귀하의 녹색소비행동(구매, 사용, 처분)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① 매 우 그 렇 다	② 대 체 로 그 렇 다	③ 보 통 이 다	④ 별 로 그 렇 지 않 다	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전자 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한다.					
2.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이나 업소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환경마크를 확인하여 구입한다.					
3. 사용하지 않은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는다.					
4. 냉방 온도를 1도 올리고, 난방 온도를 1도 낮춘다..					
5.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은 거절한다.					
6. 노트에 함부로 낙서하지 않고 아껴쓰면, 이면지를 활용한다.					
7. 물건은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오래 사용한다.					
8. 등산이나 캠핑을 갔을 때, 버려진 쓰레기가 있다면 가져오겠다.					
9.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0. 건전지는 분리수거함에 버린다					
11. 알뜰시장, 베품시장, 녹색가게, 재활용센터 등의 시설을 적극 이용한다.					
12. 생필품 중에서 쓸만한 물건은 친구들과 교환하여 쓴다.					

VI. 조사대상자의 녹색소비 교육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되는 한곳에만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녹색소비 교육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 2번, 3번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 4번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2. 녹색소비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① 정부 ② 사회단체, 민간기구 ③ 종교단체 ④ 학교 ⑤ 가정 ⑥ 기타

3. 녹색소비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어떤 교육방법이 어느 주로 이용되었습니까?

① 강의 ② 실습, 체험 ③ 시청각 ④ 현장학습, 견학 ⑤기타

4. 녹색소비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심이 없어서 ②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③ 시간이 없어서 ④ 잘 몰라서

5. 녹색소비 교육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6. 녹색소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② 참여하지 않겠다 ③ 대체로 참여하겠다 ④ 적극 참여하겠다

7. 녹색소비 교육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② 사회단체, 민간기구 ③ 종교단체 ④ 학교 ⑤ 가정

8. 녹색소비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강의 ② 실습, 체험 ③ 시청각 ④ 현장학습, 견학

9. 녹색소비 교육을 받을 경우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자원 절약 ② 환경보전 ③ 녹색 에너지 ④ 녹색소비 정책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Green Consumption Awareness and Green Consumption Behavior between Consumers in Korea and China

Mu, Jian wen

Consumer Inform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reen consumption awareness and consumption behavior of consumers between consumers in Korea and China, reveals the improvement plan of green consumption levels in both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The first half part is about the theory of green consumption, which not only provides the theoretical basis of collect the data information of the green consumption awareness and consumption behavior varieties, but also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Furthermore, the second half is consist of aim, procedure and result of analysis of actual data.

The target people of the research include the residence in Seoul, Korea and Suzhou, China, who are mainly born in 1950s and 1980s. Each party has 152 candidates respectively. All the data are real and valid. The analysis progress uses many methods in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ANOVA, regression, and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ing:

- The correlation factors of environmental problems concern and green consumption information are all larger than 3.00, which

justify that all the data are valid.

- The Chinese consumers are more concern about environmental problem than Korean consumers, which results from the higher frequency of searching green consumption information.
- Some meaningful differences exist in the green consumption awarenes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 The Korean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also vary from those of Chinese consumers.

At the end, this study concludes that Chinese consumers has more reasonable consumption awareness and consumption behavior.

Keyword : green consumption awareness, consumption behavior.